

贈呈

波 魂

金鎮基先生惠存

創刊号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

大韓速記高等技術學校 發行

祝 創刊号

國公民議院 議事局速記課

課長 金震熙
外職 姜一岡

祝 創刊号

大韓速記 藝術 協會

會長 金基漢
副會長 金天漢

卷頭言

늘 푸른 솔잎의 크고 푸르라미 불음이
心琴을 울리는
結實의 가을!

結實은 非軍 殺物과 果實의 植物에 限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人同의 理
念도 이 가을에 結實되니 生靈한 다

그러기에 大自然도 그 처럼이나 仁慈로써
玉같이 맑고 金푸른
하늘과 더불어 리없이 맑은 雲은 白의 家를 弄은 丹靨
를 하지 않는가?

우리의 人類가 글을 쓰는 才氣를 變호以호로 오늘까지 가감여울고 있을 나
은 文章도 亦是 이 가을에 創作되어 왔다

우리가 싹트는 希望의 봄에 이 學校의 門을 두드렸음의 結實의 이 가을을
마카 무엇인가 하나 연애를 갖되서 希望이였다 여기에 微弱하나

마 그 하나의 열매로서 이 遠設創作을 가지게 됨은 참으로 羨慕 可은
일로서 感慨無量하다

우를 過去는 現在를 爲하여 有價値한 現在는 未來를 爲하여 그 意義
가 있을진어 本校의 發展을 爲하여 또 本校의 第二국을 爲하여 前의 努力
을 바랄진 벗어다

學生에 告할

(副校長 徐商俊)

우리는 恒常 忠의 行되고 克하고 아름답고 또 勇氣는 生活를 追求하고 있고 指向하고 있는 것이다.

學堂生活에 있어서 學問을 研究하고 德性을 涵養하고 身體을 鍊鍛하기 위하여 은과 精誠과 精刀를 竭注하고 있는 것은 亦是 우리의 私生活 이외 公生活를 勿論하고 보이다. 諸君은 三令五令 技術을 通解하여 어나라 文化生活의 向上을 이룩하기 위하여 基礎를 固하고 있는 것으로 生覺한다.

諸君은 이와 又 勇氣는 使命과 責務가 무거운 것을 느끼고 이 基礎를 固하고 있는 것이다. 幹이 되고 和 德 體를 向하여 又 고를이어서 正무신 努力을 繼續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나서는 走馬에 加鞭하는 뜻으로 一言하고 거한다.

遠記技術을 習得하는데 있어서 非常한 道徳과 忍耐과 努力이 要한다. 是것은 以 示 諸君이 社會의 修業을 通하여 體得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精次 이 遠記技術을 完成시켜 國家 社會에 有益한 수혜의 段階에 까지 到達할려면 加一層의 奮發이 必要한 것이다.

遠記技術은 是는 談話나 演說는 是는 完全하고 正確하게 記錄할 수 있는 技術的 水準에 到達하는 것은 莫力은 勿論하며 是의 諸君의 知的 水準을 是의 水準대로 維持할

4

그것은 諸君의 많은 時間을 使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決斷한 講解하는 事상이 實로 各界 各層에 分布되고 各人の 知的水準도 各異이기 때문이다. 速記技術者는 兵卒 擲擲을 要하고 無不能道이라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 點에서 諸君도 恒常 書籍을 看하고 身體을 鍛鍊하여서 優秀한 技術을 發揮할 基礎를 固히 해야 할 것이다.

본단 아니라 身體의 健全과 人格의 修養을 爲해서 精進한 것이나 實言을 不爲한다면 實으로 實은 修學期間을 通하여 有怒의 實을 行하지 않는 基礎를 固히 해야 諸君의 生活이 健全하고 實한 功을 固히 할 實이 實인 것이다.



우리의 盟誓

- 一 우리의 大韓民國의 아들딸 諸君으로서 나라를 지키자
- 二 우리의 鋼鐵같이 固結하여 共產侵略者를 碎부스자
- 三 우리의 白頭山 嶺峯에 大槓旗를 飄揚하고 南亞細亞를 征服하자

하

遠記學習에 失敗하는 原因

(担任 崔任) 金 鎮 基

四期生이 入學한 滿六個月이 되니 去 去月 去日 現在 中途 拋棄한 學生의 數는 五五名에 達하였으며 過去의 例를 보아 앞으로 卒業일까지 자리를 함께 하진 못할 學生이 또 몇 명이 生길지 모른다 이것은 勿論 四期生에 限한 事이 아니라

해와가 되풀이될 안라 故로 現像인 것이다

그런데 大體로 그 失學한 사람들의 말들을 어보면 自己 自負의 無能함은 生原 自인 故로 遠記述은 어려운 것이다 또는 遠記述은 容易한 것이 아니라 ... 遠記가 되지 않는다는 것만 生道한 傾向이 있는데 이러한 傾向은 眞實로 斯道 普及를 爲하다 爲心스리는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勿論 二 是은 가지 原因의 理由는 別한 것 모른다 一은 心의 界 界 界를 指稱한 것으로서 二는 心의 六 界의 反照는 要領하는 바이다

첫째 二 是은 勿論 成功을 바라지 않는 것인가? ... 充分한 用意와 確然한 根柢를 말하지 않고 大體로 勿論 每事에 順任이 있다 하는 것이다

物을 세심수 觀之 故로 遠記習者에 成功한 既 屢 遠記士도 最初의 二 年 練習은 三 年의 練習과 同 苦心 努力한 結果 遠記士가 되지는 假令 人文界

일련이다

8

이와같은 終路를 밟아 자신의 素願이나 그밖의 여러가지 環境을 考慮하여 자신의 나
같은 方向—— 政治家의 지 實業家 藝術家 科學者 等等의 間에—— 이 決定된다
各有 選取한 方向은 踏을 지라도 그 자신이 자신의 選取한 方向의 最右 最善 目標——
即 理想은 大略 그 輪廓을 畫다 하지 아니 할까 한다

—— 因해서나 人類社會를 爲하여 마는 功績을 하는 것이 자신의 生涯를 價値化하고
永久化시켰다는 目標은——

그러나 이러한 理想과 자신의 나 같은 人은 決定하기까지 相當히 큰 苦惱를 겪어 힘
普通이다

첫번의 자신의 素願^{질은}이 果^然의 方向에 適合하게 하는 判斷이 容易하지 않고 따라서 이
것과 같은 素願 志氣라고 畫^畫신기 實地를 踏을 수 없는 것이요

물론 理想의 實現인 무엇이고 간에 首先 자신의 生을 維持하기 위하여 必^必히 必^必히
우선 生의 維持에 自^自己의 나가가 方向은 그것이 容易치 않은 環境에 處^處다 보므로

道^道란 것이요
그다음으로 是^是 問題는 어떠한 方向이고 同^同에 多少 同^同이라도 人類社會에 功^功績을 爲^爲수
있어야 할 것인가는 그중에 어떠한 方式가 가장 크게 가장 社會^{社會}의 功^功績을 爲^爲수 있는
之^之가 아니라 即 社會^{社會}의 功^功績의 範圍가 크나 적은 내를 判斷하는 것이요

是^是 問題는 社會^{社會}의 功^功績의 範圍가 크나 적은 내를 判斷하는 것이요

理想을 實現시키는 手段이 容易하게 發見할 수 있는 極難하다 하는 것을 判斷하기
困難하다 等은 困難 問題이다

첫째 問題가 正히 天才와 努力의 差 燭目を 달고 問題의 正이다
둘째 問題가 理想과 現實의 差 燭目を 달고 正의 正이다

셋째 問題 어떠한 것이 가장 크게 理想과 現實의 差 方便 手段이냐 하는 問題는
複雜한 問題로서 소원이 다를 수가 困難한 問題가 아닐까 生願한다

넷째 聖人是 四不惑이라 하였지만 凡俗의 나 自辨 例로 보면 五不이 가라와지고 必
오를 때까지 正斷한 判斷을 세우지 못하고 彷徨하고 焦燥하고 있는 形像이다

理想은 高 現實의 이에 달리기 쉽고 아 必을 다짐을 하고 根款하다 보면
자 解決되는 問題가 아니며 自辨이 正은 거름이 過誤가 있는 結果가 必이
自業自辨이 正이다

나 之 自辨 內자의 正은 過誤는 善自辨으로서 或이나 善生滿善의 善善가 될까
하여 理想의 目標과 現實의 目標과는 善自辨을 세우지 아니하다

理想의 正은 決코 現實을 無視하고 理想을 세우는 善自辨을 세우는 正은 必
正이다 理想의 立脚한 手段方法을 把握치 못하고 必이 善自辨의 理想 善自辨의
고 안다

그런데 理想과 現實의 環境은 善自辨 手段을 가지고 必이 善自辨이요 必이 善自辨이
必이 善自辨의 環境은 善自辨 手段을 가지고 必이 善自辨이요 必이 善自辨이

그런데 理想과 現實의 環境은 善自辨 手段을 가지고 必이 善自辨이요 必이 善自辨이
必이 善自辨의 環境은 善自辨 手段을 가지고 必이 善自辨이요 必이 善自辨이

10 어진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理想을 理想에 接近시키고자 할은 次로 一朝의 이를수없는것

이요 漸次的인 目標을 세우고 實踐의 功을 들하여 段階的으로 次々 到達하며 한다

지붕에 올라가려면 階梯에 相應한 功을 加해로 올라가야지 相應 두층을

지너뛰어서 올라갈수 없는 것이니 나의 志願의 功을 가지는 것을 理想目標라 하고서

다의 功을 가지는 功을 夫부 없이 들라가는 것을 理想目標라고 말한 것이니

萬一 나의 功을 가지는 功을 夫부 없이 올라가는 手段 方法을 考慮함이 없이 性急한 感覺

에 沈着만을 처다본 것이 空想한 것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理想目標을 結局目標을

大目標라 하면 理想的目標을 達成하면 小目標라 할수 있다

이러한 理想目標을 達成하면 功이 먼저 理想적인 小目標을 達成한 다음

에야 到達할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理想目標가 없으면 小目標을 세우는 方向이 功이 없는 功이

이므로 理想目標가 功이 있어야 함은 말한 것으로 있다

그리고 이 理想目標가 높으면 높을수록 功을 내어 功을 내는 功이

理想目標은 될수 있는 것으로 높이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理想目標의 功은 理想小目標가

세워지면 理想目標을 처다보지 않으나도 理想目標 하나하나를 到達하는 것이 곧 理想

小目標의 功을 가지는 功이 되고 만다 다만 問題는 理想目標을 세우는 功은 理想目標

가 그 理想目標을 達成하기 위하여 方法으로 세워졌으며 아니야에 있다

집행의 뜻을 나타내서 사의의 뜻을 나타내야 하는데
그런데도 같은데 하는 것 같은데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단을 취하는 것인데 그 관은 관공의 뜻을
사하는 것은 小國은 그 사위에서 나타내야

또 다른 말은 흔히 말하는 것인데 정부한 이야기인
된도 神聖한 말을 쓴다

그러나 그 말이 말하는 것인데 哲理가 看過하기 쉬운 것이

집행을 잘라가고 자하는 것인데 眞實한 것의 보고
비교를 통하여 나타내야 하는 것이

발견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若心의 힘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발견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若心의 힘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발견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若心의 힘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발견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若心의 힘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발견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若心의 힘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정치체가 되려 하는 것은 干先 行政家로 나타내는
고등시험에 합격하는 것의 目標은 하라

과학자가 되려 하는 것은 干先 그 科學가 되는 科學부
가 科學의 眞理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

발견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若心의 힘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그러나 科學의 眞理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若心의 힘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積이 數學의 眞理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若心의 힘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가 되려 하는 것이 아니라 若心의 힘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若心의 힘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그러나 科學의 眞理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若心의 힘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그러나 科學의 眞理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若心의 힘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그러나 科學의 眞理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若心의 힘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그러나 科學의 眞理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若心의 힘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그러나 科學의 眞理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若心의 힘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그러나 科學의 眞理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若心의 힘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學園과 社會의 解剖

(新圖書先生任)
신도원 신도원 신도원 신도원 신도원

李 漢 鎔

(一)

解放后 社會相이 混亂은 學園에도 混亂을 가져왔다

특히 敵兵들의 跋扈는 스승과 弟子間에 倫理를 끊어버렸고 관공안 師道는 강대

할어진 노릇은 주었다 그렇므로 激者들은 어쩔기하면 敵兵을 바르삼고 學園은

淨化하여 國家 棟樑之材를 多數輩少시킴인가에 腐心한 양을 수습했다

그런데 이중에 와셔도 孝는 凡絶之 如前이 아니라서 이를 矯正하고서 關係者는 애를

태우고 있는 眞情이다

그럼으로 學園과 社會가 相한 汚穢를 กำจัด하는 爲에 孝父兄이나 國家者 是 孝徒를

의 反者를 依反하고서 學園은 此보다도 社會는 大지 其 汚穢를 洗滌한 理想이다

社會가 後雜한 混亂한 變種이 아니라면 學園은 淨潔한 潔淨되고 淸純한 又로 生活의 爲에

그러나 社會는 生活은 社會의 表徵的인 通念的인 生活을 爲한다

왜 그러니 하면 學園은 學園의 爲의 爲한 價值는 社會의 爲의 爲한 學園의 爲의 爲한

後雜한 것이 아니라 社會의 爲의 爲한

남을 잊고서 陶宰에 빠뜨리는 수도 있다. 말하자면 眞實과 眞의 하여 虛偽와 假面의
 非自然態를 持續하는 나머지 非運의 子情의에 빠지게 되는 張本人이 얼마든지
 있었다고 考圖에서는 先奎佐의 指導와 아울러 朋友의 忠告를 받게 된다. 月時에
 自己自身은 一定社 學問을 研究하며 있다. 바꾸어 말하면 工夫를 熱心히 하고 精
 進하면 그 무는 成績을 나타 내는 것이다.

(三)

二十代의 青年期 / 人生에 있어 因花期라고 볼 수 있는 青年時期은 道德面에 있어
 어서 가장 進友가 빠르고 感受性의 靈敏한 때이다. 그러므로 기위 모 1등 사람의
 이 青年期을 最高境界의 道에 進步를 爲德面의 前途의 鑑戒지는 것이 普通이다. 肉體的으로
 精神의 力은 複雜性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學圖을 研究 社會生活의 進入은 또한 모
 是誘惑의 多수가 此期에 起는 動因이다. 貝條의 三로 創를 들어 보면 學圖에서는 于先
 線的의 起點 머리가 起히지 못하게 하고 社會學向 研究의 熱心을 守하는 功 反하여 社會生活
 은 極히 利害計算의 되고 만다. 利害計算의 實하고 金錢主義가 善惡가 되면 人肉美
 관 스런 수 있는 多極의 善惡의 功 概的인 人肉의 되고 말다
 말하자면 人肉美를 操縱한다든가 情慾을 陶治한다든가 보다는 金錢是 功 功이 번
 어 보겠다는 生覺의 實을 가로막게 된다. 考圖에서는 배우고 듣고 보는 것 그 모두가

가 知精 意의 陶冶를 爲한 것이 되다 또한 先生의 指導와 向條의 奇蹟
 이 隨伴되다 그러자 社會는 指導나 勸善은 커녕 決意의나 不足한 勇을 起하여
 배가 爲하여 血眼이 되어 號哭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청년 社會生 活은 適切의
 階나 階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서 單純히 知識의 있다든가 勇이 큰 하와
 는 것 만으로도 살어나가기가 艱難한 것이다

그러므로 學園에서 (10) 一부를 하고 二부를 하였다는 優等生의 社會生活에 있어서
 艱難者가 되는 일의 勇은 무엇이었는가?
 한편 學園에서는 階階로 오르고 오르는 사생활이 理想세계 生覺者가 될 수
 리 不在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다음의 여러 前者는 學園에서는 優等生였을지 모르나 社會生活에서는
 優等生의 여러 劣等生이 되어 버린 實의은 存하는 學園에서는 階階지만
 社會生活에서는 優等生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生覺하면 亦是 單純한 結果라고
 보겠나
 그러나 자기에는 亦是 우둔한 이 善積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努力의는 代價가 어딴 있었는가?

(五)

더우기 男領의 普通以下의 非常識人이라면 그 配邊者인 女子의 社會生活이 그 열
 마가 悲慘하리라 그 程度는 甚할수있고 노릇이다
 그러므로 女子가 男女子를 區分하고 文叔을 主張하는데는 勿論이다 女性生
 活이 重要하고 政治的 經濟的으로 自立할수있는 程度까지 進步해야만 할것이다
 그러므로 女子의 女性生의 工夫에 努力하여 自己向上에 努力하여야 한다는 것을 主張하
 여 마지않는다

社會란 것이 集團과는 別格이 分難되어야 한다는 것은 甚할수 있으나 工夫나 修養이란 추
 圓에서 만하고 것이 아니다 더욱이 社會生活에 있어서 工夫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甚할수 있다
 그분안이나 集團보다도 社會가 復雜한만큼 더욱 工夫에 精進하고 處境에 能해하
 면한다 大部分의 社會에 나오면 至今까지 修養한것을 그마치고 工夫가 世俗的
 인 社會生活을 하기때문에 先達の 指針을 본지 못하고 同輩의 善善의 友愛에 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란 工夫의 功을 이 사회生活을 할수 있는 것이 人과 사담과 사담과 서
 고도 相호應해나감으로써 長短을 도와나갈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先輩의 指針外 經驗을 學기어 받아야 한다
 그것아직도 體驗하기 못한 不知의 境界에서 善은 眞理를 求할수 있고 또한 體驗
 을 通하여 迫頭하는 事能을 善을 求해나갈수 있는 眞理이다

또한 同輩의 善善은 勿論이겠만 前輩의 交友은 또한 善의가는 同인에게 서로
 은 知識과 吸收의 結果를 提供하게 된다 人主의 黃金期에 處한 壯年 老年은
 이은바 精神을 빼고 나머지 精神의 文涉을 얻으려 하면 自己 스스로의 生命을
 短縮시키고 나아가서는 昏上과 癡狂에 되고 따라서 精神의 衰微가 된다
 우리는 先輩에게나 同輩에게서 좋은 處를 배우고 同輩에 對하여 敬重하고서 前輩에게
 서까지 自己의 不足한 處를 배워서 及格 陶治에 精進해야 할 것은 勿論이다

후원은 宗團의 體로서 價値가 있고 또한 特殊한 命令은 敎養訓練의 功이다
 그러나 이 宗團은 社會의 一部에 形成된 것만을 宗團의 淨化나 向上을 爲하되서 社會의
 淨化나 明理化가 緊急한 點을 말하리야 할 수 없다

社會의 淨化나 明理化를 圖謀한다면 普通한 階級의 階級의 善善한 精神의
 으로서 養成되어야 할 것이다 平時에도 그러케 成되기 위하여는 더욱 그러하다
 宗團의 任務과 宗門 研究와 修養은 人和養成에 있을진대 宗團의 社會淨化의 任務은 宗團
 만이 보았다

그러므로 宗團은 宗團으로서의 典典을 善任을 爲하되야 할 것이다 宗團의 體로서의
 任務은 勿論이었고 不必要한 功을 社會에 爲하되야 宗團의 體로서의 絶
 對함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일부의 추원은 高國體를 지향 任務를 다함으로서 實效의 爲에 沒交渉하는 것도 不當할 것이나
 이런 의미에서 추원은 社會에 進出시키지 欲하는 爲로 應行한 社會 變革을 實現시키려는 理想이다
 社會와 學校의 關係가 理想의 實現에 存在하는 關係이다 自由로 進出하는 理想은 理想으로
 爲한다 實現할 爲로 學校가 自由로 進出하는 理想은 社會變革의 實現이 되므로 學校
 만이 理想이다

(九)

學校의 理想은 이 社會가 進出하여 學校에 進出하여 建設을 進出하여 實現하는 것이다 社會가 變革을 爲하고
 學校가 變革을 爲하면 學校의 社會는 永々 再生의 機會를 得게 될 것은 自由로 進出하는 爲이다
 學校가 自由로 共同생활을 爲한다 나쁜 社會에 進출하는 學校의 社會가 自由로 進출하는 爲이다
 自由로 進출하고 自由로 進출하는 社會가 自由로 進출하는 爲이다 學校의 社會가 自由로 進출하는 爲이다
 自由로 進출하는 爲이다 自由로 進출하는 爲이다 自由로 進출하는 爲이다 自由로 進출하는 爲이다

學校의 社會는 여러 가지 爲에서 不自由 爲이 爲나 自由로 進출하는 爲이다
 學校를 自由로 進출하는 爲은 學校 變革을 爲하는 爲으로 自由로 進출하는 爲이다 自由로 進출하는 爲이다
 自由로 進출하는 爲이다 自由로 進출하는 爲이다 自由로 進출하는 爲이다 自由로 進출하는 爲이다
 自由로 進출하는 爲이다 自由로 進출하는 爲이다 自由로 進출하는 爲이다 自由로 進출하는 爲이다
 自由로 進출하는 爲이다 自由로 進출하는 爲이다 自由로 進출하는 爲이다 自由로 進출하는 爲이다

그리하여 大部分의 孝徒들이 또한 孝道를 遵行하는 困難을 느끼고 있는 것이니 孝國生活이 明
 朗하리라는 것은 좀처럼 期待하기 困難하다. 因難하고
 뒤이어나가다가 共產主義를 休戰中이라고는 하나 敵의 侵略下에 있는 만큼 孝徒들의
 不安定된 孝國生活은 道義의 精神을 喪失하게 反映될 것은 事實이다. 또한 뒤이어나가
 戰亂으로 말미암아 破壞가 尤甚하고 建設의 不振狀態에 있으며 또한 아직
 國土統一을 達成치 못하고 있는 만큼 各地의 隘路와 苦難이 屢生屢發하고 있다
 이러한 條件에 際合하여서 무엇보다도 指導者의 大奮起가 第一이며 精銳의 伸張及
 奮이 緊切하다.

그리치 못하여 指導者이나 精銳들이 社會의 混濁한 氛圍에서 奮을 진다는가
 孝徒의 隘路圖를 打開하지 못한다면 이는 確실히 悲觀의 原因이 된다.
 그림으로 濁流속에서 一線의 清泉이 浮現하며 寒風中에서도 百花가 咲를 것을 自期하여 社會를 淨화하고 孝國은

明明하게 하는 데 道義의 精神이 多數輩에게서야만 나타
 그의하여 道義의 社會가 浮現하며 連綿해오며 한 便 孝國이 孝國으로
 浮現한 社會를 造成하기 爲 奮을 新發하여야만 할 것이다.



後悔

先輩

金宗和

처음에 좋은 푸라다스하에 원과리가 鋪道의에서 볼부림은지은 저년이면 유살 망용
아편리고 氣分이 變換해지다

가늘어 가고 해가 바기면 노간 봄이 다지 찾저을것이의 悲鳴은 空靑안 落葉을
지리밧고 心의 苦惱를 必히기 가는 사슴들의 悲鳴이로 어진지 가시지않은 表
情이 가물거리는 것같은 錯角인는다 가물은 結核과 清算의 季節이다

어린時期에 日記의 記를 未自은 또다음같은 그리고 오는 해에 하교 주머
를 볼호거리고 日記의 記를 未自은 또다음같은 記憶이 至今도 鮮明하다

그리고 그때마다 例가 없이 境界 必한이었고 그 失敗의 痛恨 다름은 내가 不運했디
자손가 背反했디나 玄하의 夢의 大奮을 弄하기를 以지 않았디

그나 스승은 그 동안 學의 精을 어든 生命의 苦와 情熱의 苦를 以지 지
고 있어졌다 그리고 그 무언의 根이 最近까지도 默知되고 귀져지일은 良心의 運

喜書 汗을 沁어내었다
이는 希冀의 遙遠과 情熱의 衰退는 겨우 清算할 수 있었은 지난 公務員生活八年의

2 後悔 悲鳴의 高聲가 耳에 自耳하게 不測美단에서 聲기 刺이기가 刺고 明白의 苦고

내일의 것이 말하고 있다

최대한인행은 채살려보면 이와 같은 소리는 數年前에도 들었음에 이를림은 것같다 이
것은 소위와서야 知覺 있다는 것은 그만중 내가 覺悟했고 自己欺滿의 陶醉의 있었다
그것을 意味하는 것이 아닐까?

나는 몇해전대 언젠가 문득 速記本을 바카본일이 있다 그리고 그해 平生을 거기에
비하여 대어진 나와 伴 사람의 演說을 追及하는 고양이 상판 모양 얼굴을 지푸
리고 速記하고 있는 내 초카한 光景을 想像해보았다 이 不忠한 幻像은 그后
나을 不快하게 했었다 그대치만 事必歸正인 以मे와서는 무엇을 했을까

未日이면 三斗의 酒杯에 酒를 권한다 人生에 있었 苦惱 華叢하고 苦惱 苦惱한 青春
을 虛德의 自己欺滿으로 道算이나 한다는 것은 어찌하여도 挽回할 수 없는 檢失이니까
醉同은 도와 狂은 金銀이 있다 하나 돈과 心構은으로 万一式만 成되리라 면 時
同은 돈의 自來의 自來인가 라고 되치고 있다

金錢과 地位는 醉同에 比해가며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다 오를날 가지키, 生活가운데
最大의 不幸福 指摘과 하면 나는 先翁 祖父라고, 内務를 恨의 재 했다는 事實가 알고 말하질
지난 날의 遺囑을 未練의 認識과 遺憾이 남는다는 것은 그날바 本分을 다하지 못하
與世者의 遺囑이고 未和의 未和에 對해 勸告하게 批評할 精意의 欠은 頑者의 踟躕이거나
플랫의나 그리고 나그는 醉한 플림이니 醉한 醉한 의 任道로 가까이 끌려가는 醉한 醉한 醉한 醉한 醉한

凡으로同化 된 過程 이므로이다. 내게 必死한것은 必死한 計劃도아니

다만 必死의 誠實하고 信念의 忠實한것은 必死한 計劃을 必死한 生命의 信終과

같은 必死한 必死함을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오직 기뻐음이가

遠征士로서의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全 範圍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必死한

내게로 오라. 근근이의 첫날을 (내가) 보고 싶구나. 내게서도 가 보면. (내가) 보고 싶구나. 첫날

을 보지 못하니. (내가) 보고 싶구나. (내가) 보고 싶구나. (내가) 보고 싶구나. (내가) 보고 싶구나. (내가) 보고 싶구나.

내게로 오라. 근근이의 첫날을 (내가) 보고 싶구나. 내게서도 가 보면. (내가) 보고 싶구나. 내게서도 가 보면.

내게로 오라. 근근이의 첫날을 (내가) 보고 싶구나. 내게서도 가 보면. (내가) 보고 싶구나. 내게서도 가 보면.

내게로 오라. 근근이의 첫날을 (내가) 보고 싶구나. 내게서도 가 보면. (내가) 보고 싶구나. 내게서도 가 보면.

내게로 오라. 근근이의 첫날을 (내가) 보고 싶구나. 내게서도 가 보면. (내가) 보고 싶구나. 내게서도 가 보면.

내게로 오라. 근근이의 첫날을 (내가) 보고 싶구나. 내게서도 가 보면. (내가) 보고 싶구나. 내게서도 가 보면.

내게로 오라. 근근이의 첫날을 (내가) 보고 싶구나. 내게서도 가 보면. (내가) 보고 싶구나. 내게서도 가 보면.

내게로 오라. 근근이의 첫날을 (내가) 보고 싶구나. 내게서도 가 보면. (내가) 보고 싶구나. 내게서도 가 보면.

내게로 오라. 근근이의 첫날을 (내가) 보고 싶구나. 내게서도 가 보면. (내가) 보고 싶구나. 내게서도 가 보면.

그러서 才의 이황까지 辯明해 보았습니까

양만 그대도 조주말 때 내가 優華초이 있었습니까 이 辯明이 合理인 辯明이라면 나는 正
말 正意 生活 一年 동안이니 養華에서 醜戾가 勝제한 結果 같은 論說으로 歸結될 것입니까

그러나 養華나 대적은 그런 나중 이 없습니까
너희분도 大의 내기를 조주기 전에 내가 너희분대 한말의 實效는 말로 보아도 熱心이 하십시오

그기하다 養華에 勝제 하시고 한 것입니까 熱心이 한 말이나 조주말 할 때까지 들은
면 귀머귀지가 안 들으니까 들은 말이었습니까 마는 내가 한 말은 오를 要記스후에서

상수리리 지어보는데 뜻한 情誼에서 들은 말입니까

결론五分 公說之 雜說의 半당이 소위와 함께 들었습니까 賢이 높고 나니 賢을
는 높히십니까

梅亭 들이 들 말과는 좀 다르스군인 들을 보아서 그랬는지 오히려 맘이 動搖되진 않았
음의가 公說의 半이 아닌 것은 하와도 正意스후 기뻐서 들었지요

명출산는데 親切하신 先輩 諸兄께서 귀머귀를 귀에 귀드루스군요 禮마를 귀머귀우니
말이 잘 들리시니 그대도 받아 들으셨습니까 公說의 대입도 故事局長의 報는 事蹟이었

기 때문에 말이 빠르지 않았기네 才力이 華이 되었지만 無我 狀態가 되어 산지니 先生재이 公說하든 贈示를 합니까

梅亭 先生 재이 公說하든 贈示를 합니까

흥취나아 불아는 曠間 飛光生이 함께 쓰였으니 하의 安堵感과 함께 들나았음이다

높은 殿을 걸어나올 때 此殿의 威相의 내 마음은 그랬을 거거고 을 첫

비개 4 形式이나 是는 曠間이 세지하게 되돌아오

速記를 배웠나오 그리 한가지 技는 宗藏을 서 갖추어 보라 그것 변이 되었지

그 생원이 也月과 함께 놀러 慶亨을 배웠 略亨에 들어나니 速記 功 是 功을 보아 하느것이

라 이것을 自學하기 싫었다

다 나다 잊 生은 宗藏 宗藏의 功을 偽해서 이것도

여의본 들은 先는 宗藏으로부터 大기를 들었음은 모르지만 나 宗藏은 速記를 抱來한 것

같나 그리 宗藏의 曠間이 나 같고 나 같고 宗藏의 功을 宗藏의 功을 宗藏의 功을

남에게 뒤떨어지신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것입니다 그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은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速記 宗藏의 功은 나사나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더욱 宗藏의 功은 나

의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이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宗藏의 功은



速記士 되기까지

수필인 오수

速記士가 되기까지 回想이라 다상 편은 없다 무엇을 썼는지 모르며 역시 수필인이 아니다

지난 一年 동안 國語를 배웠는데 昨年 陽春에 모른 植物이 在任 豫州와 峽를 같이 하여 不意中에

速記士가 되게 하여 希望의 첫 싹을 내어 드리게 되었는데 貴이 希望의 첫 싹을 대 받음 내의

디게 된 希望은 두 손과 두 피네 처한 若干 是로나 다 常識의 道로 알게 되며 原因이 나 아니 되고 無의

식중에 스러뜨려 버렸으니 幸이 도무지 없고 病이 도무지 無 速記文 두 인 지라

초조한 心을 이 불교 速記주의 첫 善果를 다 그 하여 가, 가고 구, 가 인 배우는 過程에 然되

다 싶은 希望이 내일 速記가 教拜前 가고 구 하는 時節을 是앞에 그려 보게 되어 反及

面에 過去 一年 間을 無意味하게 지낸 나로서는 失望 幸校의 빠른 速記에 快하게 되었다는

痛안데 無恨이 기쁘고 또한 속스런 感도 似기 싫었으나 亦 昨日이 經過된

을 따라 이러한 希望의 實現 速記의 基本文 두 의 基本文 두 의

취한 速記 速記 速記 나와 밀미에 依르기 始作하였다 速記의 速記의 速記의 速記의 速記의

이 文 두 의 習得을 爲하여 速記의 速記의 速記의 速記의 速記의

速記

이제 글을 두세번 읽고 우리들에게는
두번의 물로써만 하는 것보다도
다섯번의 물로써 하는 것이 더 낫다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의 뜻을 다하여
그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의 뜻을 다하여
그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의 뜻을 다하여
그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의 뜻을 다하여
그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의 뜻을 다하여
그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의 뜻을 다하여
그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의 뜻을 다하여
그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의 뜻을 다하여
그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痛의 수작은 자신은 아왔다 그러나 내가 一年에 사은 功績의 勝算을 써 進退回轉의 아
 을의 進退回轉의 원리를 보거나 할 것 없이 그야말로 머리를 도끼로 깎아 惡運을 만나 過表 一年
 間의 功績은 이미 決定의 事實이었다 이후고 卒業을 마지하여 進退回轉의 進退回轉의 推
 을 드문드문 그러나 양면의 양면의 노이게 되고 알았는 것이라 卒業하기까지 卒業局의 推
 進에 따른 功績을 진보한 名林으로서 여러 同期生들과 같은 進退回轉에 注力하게 된 데 傍聽
 席의 한 명으로서 나와 날마다 나를 보내게 됨이었으니 이것은 品性의 継続적인 努力의 前産이라
 는데 感撫가 無量을 분으므로 저게 감 되었는 것이다 傍聽席들이 敎授한 甲에서 온 우리에게는
 特權이 허락되었으며 또한 翰林 特殊人인 것같이 생겼었다 왜냐하면 다른 境界에서 배워온
 學問 諸부강을 들을 것과 傍聽席을 보내는 것과 몇 가지 鉛筆을 놀갈 수 있는 날이었기 때문
 이다 靑은 英雄의 心理에 이끌려 일부러 보자 뜻이 變에 앞아는 사람이 귀한 우리 같은
 人이었다서 서보치도 않았다 이럴 때 나와 周圍의 傍聽席들 壇上에서 賢을 하는 漢
 翁부라도 나의 才氣가 速進되게 하여 주심이나 갖민 듯 全部를 기우리고 저라 보게는 나
 보를 次席가 될 줄이 充滿한 것이었다
 또한 傍聽席들은 나의 進退回轉의 進退에 功績을 주어 美力을 養成시키는데는 功績이 아니
 었다 進退回轉의 功績이 끝나면 私談을 시키는 것은 나의 進退回轉에 처해서 말을 듣는 사람이 있었
 으니 이럴 때 나와 나는 自信滿々한 듯이 비기게 처해서 卒業이 나오면 으레히 그들을
 나와 進退回轉의 功績을 依擬함을 모르고 一大好評을 듣는 것이었다
 卒業 功績을 보지 않나 依擬함을 보지 않나 依擬함을 보지 않나 依擬함을 보지 않나
 이리한 듯이 眼을 띄어 一년은 안을 功

右軍에게

드리는 글

人五福

速히는 변은 지드 一年이 넘었 卒業한지 放蕩 一個月이 지났는데 이제야 勉勵 勉勵하게
 보나 前先生任들의 큰 恩惠도 恩惠이 아니라 나 自舟의 大教의 勸勉을 다함은 것이
 箱의 報答이 되리라고 生運하니 不肖한 速히速히로써 어찌케 어리한 態度로서 醜한
 것이 失決回卷인 것 같다 溫古知新이라고 試驗때를 聯想하면서 此의 業務에 臨해서 取할나 態度는 決然
 하라 速히의 必要했다 聯想하면서 此의 業務에 臨해서 取할나 態度는 決然
 너 무나 緊張하는 것도 中庸 못하고 鄙劣나 精神을 다도 喪진다는 것을 산다 그러나 溫激도 아
 니오 辭地도 아닌 各各普通地인 平穩한 態度라 하는 것은 어찌할 것 같았다 功의 結果라
 冥榜에 隨하는 意思에는 充分이 覺달되지 誘惑해서 말한다고 하면 覺醒의 功의 結果라
 고나 覺醒 覺醒이 覺醒하는 不肖과 함께 時間을 前提로 하였다 此의 功의 結果라
 生運하니 前例에 비추면서 反文을 前提로 하였다 此의 功의 結果라
 崖內 速히速히에 나가는 데 되도록 覺醒의 面을 避한 기 때문에 此의 功의 結果라
 此에 覺醒하는 覺醒이 速히가 아닌 것은 至은 覺醒의 面을 避한 기 때문에 此의 功의 結果라
 冥榜에 隨해서 覺醒의 面을 避한 기 때문에 此의 功의 結果라
 未覺醒이 覺醒하는 覺醒의 面을 避한 기 때문에 此의 功의 結果라
 나와 보나 此의 覺醒의 面을 避한 기 때문에 此의 功의 結果라
 이때에 覺醒이 覺醒의 面을 避한 기 때문에 此의 功의 結果라
 이것은 覺醒의 面을 避한 기 때문에 此의 功의 結果라
 聯想인데 此의 覺醒의 面을 避한 기 때문에 此의 功의 結果라
 第一 此의 覺醒의 面을 避한 기 때문에 此의 功의 結果라
 外 此의 覺醒의 面을 避한 기 때문에 此의 功의 結果라
 實力養成에 努力을 아낌없이 하는 것만 上 此의 覺醒의 面을 避한 기 때문에 此의 功의 結果라

道放道간 清散道는이 依計였으나 그들은 內然을 外衆을 西部로 東部로
간가 國算計이 그들의 經濟力을 是之히 하겠으며 一七二六年에 十三日洲로써 美
國을 形成하고 시킨것이다

이외는이 그들은 統一 道放道 國體로있으며 現狀에 처하면 一이나 二보다 執
着力 狂放想 進取性이 豐富했으며 또 그들은 經濟性에 처해서 一보다 二가
上計한바와같다 我國外 民族의 多變을 此教訓을에대 우리 民族의 主流思想은 民族意識
의 搏弱 變思想의 過多 經濟性의 薄弱 現狀의 無視 封建的 戶次制的 遺存
것이 다 現狀을 가버리고 經濟性을 徹底追求하는것을 一보다 二가 上計한 一은
나 二보다 一은 現狀에 있어 國家國民總體의 一보다 二가 上計한 一은 二보다 一은
상計한것이 아니라 이와같이 現狀에 一보다 二가 上計한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오른바 이와같은 一의한 悲慘한 現狀을 一보다 二가 上計한 것이나

물론 一의한 것은 二의한 것보다 一보다 二가 上計한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어디까지나 現狀을 一보다 二가 上計한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이 一보다 二가 上計한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에 처해서 二의한 現狀을 一보다 二가 上計한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一보다 二가 上計한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이 一보다 二가 上計한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手 一보다 二가 上計한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手 一보다 二가 上計한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手 一보다 二가 上計한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手 一보다 二가 上計한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手 一보다 二가 上計한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手 一보다 二가 上計한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手 一보다 二가 上計한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手 一보다 二가 上計한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手 一보다 二가 上計한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手 一보다 二가 上計한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手 一보다 二가 上計한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手 一보다 二가 上計한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手 一보다 二가 上計한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手 一보다 二가 上計한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手 一보다 二가 上計한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手 一보다 二가 上計한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手 一보다 二가 上計한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手 一보다 二가 上計한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手 一보다 二가 上計한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手 一보다 二가 上計한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二보다 一은

假令은 手版으로 하기로 한다

이것은 過去는 史를 通하여 나라이면 浮動的인 莫假假는 盲目的인 幸而의 體를 爲한 幸而

思想을 排除하고 莫假假性은 經濟性을 追求할 수 있는 能力이 國家各各全體에게 賦與

되리라 할 것이 精先務이다 그러면 國家에게 國家의 國民各各이 均等한 經濟力을 獲得할 수 있으리라

하 國家가 國家의 國民各各이 均等한 經濟力을 獲得할 수 있으리라 國家의 國民各各이 均等한 經濟力을 獲得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一々一技의 重要性을 想求할 수 있으리라 國家의 國民各各이 均等한 經濟力을 獲得할 수 있으리라

政治 經濟 文化 教育 農業 方面에 있어서 國家의 國民各各이 均等한 經濟力을 獲得할 수 있으리라

他要는 假令은 國家의 國民各各이 均等한 經濟力을 獲得할 수 있으리라 國家의 國民各各이 均等한 經濟力을 獲得할 수 있으리라

에 對하여 安堵感을 有하여 國家의 國民各各이 均等한 經濟力을 獲得할 수 있으리라 國家의 國民各各이 均等한 經濟力을 獲得할 수 있으리라

上記의 一々一技의 諸意는 技術의 由來 國家의 國民各各이 均等한 經濟力을 獲得할 수 있으리라 國家의 國民各各이 均等한 經濟力을 獲得할 수 있으리라

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一々一技의 諸意는 技術의 由來 國家의 國民各各이 均等한 經濟力을 獲得할 수 있으리라 國家의 國民各各이 均等한 經濟力을 獲得할 수 있으리라

技術이란 前者를 包含한 것 이고 國家의 國民各各이 均等한 經濟力을 獲得할 수 있으리라 國家의 國民各各이 均等한 經濟力을 獲得할 수 있으리라

專工하는 面에 있어서 他者에게 賦與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國家의 國民各各이 均等한 經濟力을 獲得할 수 있으리라 國家의 國民各各이 均等한 經濟力을 獲得할 수 있으리라

을 리스 것 수 있는 能力을 總括하여 國家의 國民各各이 均等한 經濟力을 獲得할 수 있으리라 國家의 國民各各이 均等한 經濟力을 獲得할 수 있으리라

한다 이와 같이 一々一技로 因한 特殊技術化는 國家의 國民各各이 均等한 經濟力을 獲得할 수 있으리라 國家의 國民各各이 均等한 經濟力을 獲得할 수 있으리라

의 象으로 나타났을 때 特殊技術者(一々一技)의 專長을 國家의 國民各各이 均等한 經濟力을 獲得할 수 있으리라 國家의 國民各各이 均等한 經濟力을 獲得할 수 있으리라

意味는 產物家能成이 完全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國家의 國民各各이 均等한 經濟力을 獲得할 수 있으리라 國家의 國民各各이 均等한 經濟力을 獲得할 수 있으리라

外 36

性을 發見한 바 같은
 周圍環境을 明瞭해
 진 것이라. 그는 社會
 性한 학다운 實용을
 느끼는 것이나, 우리나
 라와 같은 經濟的 實용
 을 느끼지 못한 나라이기에
 서 子구마 能力으로
 나-는 남에게 못지않은
 것이 國家再建의 途
 途에 이바지 할 수 있
 이 아닐까? 生애한
 다. 本국의 經濟的
 要需之 考動하고 美
 術性의 經濟性을
 볼 때는 그러한 人가

詩 孤想 梁基興

그대 마음은 조물과 같아
 나의 마음은 조물과 같아

그대 마음은 조물과 같아
 나의 마음은 조물과 같아

새로운 양, 한아름, 겨엿고, 외로히 걸음
 갑단한, 이마음, 누구에게 퍼볼까

天雨도 孤想, 아-양, 시원스런
 마냥 그리운 이마

이제와 북개 내마음 풀풀
 외로운의 意, 甘은 데서도

후복의 혼은 기쁘다
 바람 조차 없는 이 들만

푸른의 숲간
 거인들, 곧 아라도

孤獨의 구의 魂
 어반도

그대 그리자면 날은
 마냥 그리움이며

들으시오, 꿈에라도 볼이나 등불이며



要需한 것이 아니라
 美한 信賴性의 明瞭한
 人가 要求하는 것이 다

그리고 이의 간은 特殊
 術의 文化의 品場은

口系의 社會的 問題를
 이 제 오직에게 주어진 國

際의 環境이 우리와 特殊
 技術의 獲得에 가장 重要

인 것이다. 各근거진 把握
 力量과 天性을 發揮

하여 한 사람이 한 개의 能力을
 가리니 國家의 再建과 口

系統一 聖業之大系에 對
 大인 其의 功을 爲者

筆者之 바라-는 바이다.

一 人間의 發達 過程

一 現代의 位置

徐 平吉

人間은 自然系의 支配에 처한 地位에 있다고 한다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 古來로 東洋에서 人間을 萬物의 靈長이라 하고 稱한 것 외에 亞

사트는 萬物의 尺友이다 라고 리타콜라스는 말했다

이 人間은 生物의 最高存在이며 言語를 가진 理性的存在이며 이 位置의 存在性은 不

的 變遷을 서 一定한 限界에 이르러서 存在이 未用히 乘込하게는 動物과 比較한

것이며 現在에 있어서의 優位性的 諸現象을 본다면

라고 리타콜라스는 말했다

團體存在가 이러한 爲으로서 尙히 人間으로서의 優位에 이른기에 戰爭은 激化의 與

고 甚至於는 宇宙又 地球까지 破壞는 遂行되고 있다

人間은 宇宙에서 不史의 發展을 구하였으리 西來 陳腐은 勢力이 地球上의 人間他

位를 一元化할 것이며 宇宙와의 接觸은 또한 일어난다고 본다면 倏忽 人間이 進보해서 부러

地球上의 滅亡의 時까지 戰爭은 絶えず 繼續될 것인 가 / 區々한 國數이라

外에 隨伴한 戰爭은 人間의 科學 文明을 發展시켰으며 國數의 滅亡의 危險을 招起할 것

으로 平和의 前途의 難難을 示해 주었다는 漢論의 事實은 展開되고 또한 發展은

繼續한다 그러므로 亞細亞의 不史의 發展과 現代의 進着함을 位置를 산파 본다면

따라서 古界文明 傳位의 國家에 到達하기 위하여 進歩해야 하며 完全獨立國家로서
 다스려야 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數萬이 싸웠고 또한 이겼으며 又는 蹂躪
 을 당하고 喜悲의 故史며 善政代의 平知生活 現像은 꿈과 같은 感想에 감기며 倭
 政治下와 같은 滅亡의 危機와 原因을 懺悔할 때 燭心充天함을 察치 못한다
 燭心란 右代文化之 오늘의 演劇보다 더한 華麗한 喜殿의 震像은 찾아보기 어려
 며 近來三一運動은 直接 오늘의 統一理想에 임이 되어 가슴이 고동은 된다
 不史之 살은신 先靈이 시며 尤靈은 高靈未 王叔斗爭 本朝五百年間 荒泠分裂故은
 그러로 國家運命을 左右하였고 本朝末葉의 騷亂한 時期는 重要한 國家存續의 爲에도
 防衛策之 소홀히 하였음에 政府의 弱點과 國民의 破란은 또 外勢에 대한 牽連은 滅亡의
 클락은 不史페지기에 넘치양은 면 양 되었고 倭敵의 勇猛下에 이르 民族의 精神을 沒失하였으며
 反抗運動은 社内外의 火氣가 燃아 일어난다
 이러한 暴內雨外火氣에 있을 지라도 民族의 精神은 살아 있으며 이것이다 日本이 滿州政服
 에 交換條件으로 處理된 간도河嶺 아름다 宗覽수여의 三一精神 오늘날의
 困境은 吾界恃勢는 尊한 視하고 國難의 排他思想의 思想과 事大主義의 類思想等이 然思想은 거의 없었으며
 火氣之 心腸은 察하지 못하기 같은 現狀은 倭寇의 遺通한 때 道徳과 心血로써의 固
 結과 再奮의 力이 然國土의 民氣를 再개立한 南業統一을 行하야 비 우리의 血로써
 實行이 着實한 것이다
 그것은 燈火를 켜주지 못하며 成취를 바라지 못한다



隨筆

K 두애게 보내는 글

李鍾均

K兄

뉘과 허여진 采數何月이 지났고요 兄과 그정듯 兄情히 지어는 生境이 이 季節을
을 가지하거 새삼스러워지는구려

남들은 이 季節이 天高馬肥기 佳節을 燈火可親之節이 같고합니다마는

나에게는 오려 이 季節을 秋傷之感한 季節은 生境과 같은 바아오

그러나 心懷亦은 秋悲心한바아아오

K兄

今年와 같이 落葉노처럼 秋의 愁를 愁한 酷暑는 君은 秋氣가 天熱한바아

어는듯 슬그머니 물러가고 秋의 氣는 秋의 山과 바같이 秋의 氣로 吹거거려나

생치면 한 나더게는 昨年の 秋氣가 나의 胸裡속에 秋의 氣는 구려

때때 兄과 같이 왔나 同是한 秋氣 同是한 秋氣의 以有 나는 兄의 처하더 矣

할수 없는 友情은 우리들에게 別려 놓았는것이오

그러나 秋情을 感한 秋氣를 왔나 兄의 生境이 秋氣는 秋氣의 別려한 別려하고는 할수

없소 秋氣의 秋氣의 命運과 命運은 兄이나 兄이오

그것이 이제와서는 한 사람의 양육을 뜻하는 말이지요. 부모도 그렇고 생활하였으
리라. 그러나 우리의 양육이 개체적 양육이요, 중심 생활은 父母

K兄 /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슬프다. 그러나
관을 위하여는 것이었으니. 하나씩 하나씩 애의 다른 사람() /

여기에서 () / 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러나 거기에서
별다른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알 때 너도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나의
행복이라든 것을.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나의

모든 것 이라고 하는 것이. 理想의 현실은 다르나 크라하. 同福이었다는 것은.....
이 同福을 위하여. 나가는 것이 나의 報大의 일이라고. 나는 生活하였요

或者之 비웃음이라. 理想外 生活가 同福한 者라고 / 그러나 그것으로
그들의 生活觀이요. 나의 것은 아님을.....

그러므로 K兄이요 /
아직 專門이 들어서기 전에. 兄은 비마나. 마음에 動搖를 느끼고 있었습니까?

兄의 마음이 고요할 수는 없으나 事變의 지이요. 變
遷해가. 社會의 오직 무엇을 求하고 있는지. 兄의 境遇를 말한가. 兄弟라도

兄께 맞지. 하나 오직를 求하는 事變의 지이요. 兄弟라도 境遇의 지이요.
이것도 人의 지이요. 그런가요

그것은 兄弟라고. 兄의 農村生活는 나가는 것이요. 나가는 말이지. 映雪의

스크린처럼 모든 光景이 흘러가도

五穀이므로의는 粟마로수며 穀類의 稼收! 이 얼마나 가슴번산(일인)가요

이것은(의안) 痛苦의사 래어나서 痛苦의사선 그대를만이 痛苦할수있는 痛은일

이라고 痛고있오 今후엔 痛대이라니 痛苦나기보겠오

다들오 痛고 痛으며 痛비는 痛을지안보고 可아라에사 濁酒의醉는 覺天!

비취공의(의)빛이 번번(이)은나사! 眞情공(의)부름(은) 豐作(의)보리(의)村(은) 覺天!

이것이 나의 痛苦를 이나가오 저녁의는 반디를 覺(은)아 覺(은)음(의)간(은)게 覺(은)을

覺(은)가 痛苦의 痛은구면(의) 覺(은)에 覺(은)기(은)것 또한 痛(은)미(의)가 覺(은)것(은)이오

覺(은)는 痛(은)의 痛(은)고 覺(은)을 痛(은)痛(은)하고 覺(은)는 痛(은)다 覺(은)지(은)보(은)아서

覺(은)는 痛(은)의 痛(은)이라 覺(은)나 覺(은)의 本(은)體(의)가 覺(은)晚(은)來(은)靜(은)心(은)恨(은)死(은)生(은)

覺(은)는 痛(은)의 痛(은)은 痛(은)아 나나 覺(은)지(은)未(은)曾(은)의 覺(은)했(은)나 覺(은)의 覺(은)身(은)痛(은)은 覺(은)美(은)

覺(은)는 痛(은)의 痛(은)하고 覺(은)는 覺(은)의 覺(은)미(은)오 覺(은)나 祖(은)國(은)統(은)一(은)戰(은)線(은)의 覺(은)신(은)유(은)의 覺(은)志(은)는 覺(은)苦(은)惱(은)하

覺(은)는 痛(은)의 痛(은)은 覺(은)의 覺(은)을 覺(은)기(은)한 覺(은)은 覺(은)는 覺(은)것(은)을 覺(은)다 覺(은)는 覺(은)美(은)在(은)念(은)의 覺(은)度(은)裕(은)法(은)의 覺(은)遊(은)閑(은)處(은)

覺(은)는 痛(은)의 痛(은)은 覺(은)는 覺(은)을 覺(은)美(은)하(은)는 覺(은)오

覺(은)는 痛(은)의 痛(은)은 覺(은)는 覺(은)을 覺(은)美(은)하(은)는 覺(은)오 覺(은)는 覺(은)美(은)在(은)念(은)의 覺(은)度(은)裕(은)法(은)의 覺(은)遊(은)閑(은)處(은)

覺(은)는 痛(은)의 痛(은)은 覺(은)는 覺(은)을 覺(은)美(은)하(은)는 覺(은)오

覺(은)는 痛(은)의 痛(은)은 覺(은)는 覺(은)을 覺(은)美(은)하(은)는 覺(은)오 覺(은)는 覺(은)美(은)在(은)念(은)의 覺(은)度(은)裕(은)法(은)의 覺(은)遊(은)閑(은)處(은)

覺(은)는 痛(은)의 痛(은)은 覺(은)는 覺(은)을 覺(은)美(은)하(은)는 覺(은)오 覺(은)는 覺(은)美(은)在(은)念(은)의 覺(은)度(은)裕(은)法(은)의 覺(은)遊(은)閑(은)處(은)

覺(은)는 痛(은)의 痛(은)은 覺(은)는 覺(은)을 覺(은)美(은)하(은)는 覺(은)오 覺(은)는 覺(은)美(은)在(은)念(은)의 覺(은)度(은)裕(은)法(은)의 覺(은)遊(은)閑(은)處(은)

覺(은)는 痛(은)의 痛(은)은 覺(은)는 覺(은)을 覺(은)美(은)하(은)는 覺(은)오 覺(은)는 覺(은)美(은)在(은)念(은)의 覺(은)度(은)裕(은)法(은)의 覺(은)遊(은)閑(은)處(은)

覺(은)는 痛(은)의 痛(은)은 覺(은)는 覺(은)을 覺(은)美(은)하(은)는 覺(은)오 覺(은)는 覺(은)美(은)在(은)念(은)의 覺(은)度(은)裕(은)法(은)의 覺(은)遊(은)閑(은)處(은)

모든 그런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사후의 양을 얻어 살게 되고, 나는 노년하고 있어 우
 리가 万若 잇을 을 버리게 되었다 하고 하면, 우리는 未 矣 勿 이 없었다 기쁨으로써
 祖国統一 光復과 우리의 福祉, 다사알았다면, 우리가 사가나 것을 주고, 나가는 데
 先鋒을 서야만 될 것이요

K元

모든 내가 무엇을 배기 하려고 할 것을 알겠지요. 남도 그것을 받으면서, 이것을 쓰는 것이요
 우리는 종종 이 책에 林流에 處를 라간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環美 生活이기 때문에
 이리, 그러나 무지하여, 처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우리의 生命을
 맺었는데야, 그것은 우리 청년들의 의지, 必要하는 일이고, 우리는 다만 莫然한 그 무엇을
 指向하고 나가는 것이요, 그래서 이 해나 또한 無意에 한 것은 아니라고, 나는 이것은 나의
 肉, 우리는 오직 好衣 好食과 富貴만이, 생애에서 眞價를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아니다란 것은, 모든 것의 眞價라고 있을 뿐이요, 그러한 하며, 우리가 생애 처한 참된 값어치가
 무엇인지도 모를며, 그러나, 생애는 아니요, 나는 그러한 眞價, 생애 해, 眞價를 가만
 그런다고 하면, 나의 眞價를 物價의 面에서 보다가, 精神의 眞價와 眞價라고 한소, 나는 여러
 생애 처한 참된 眞價를 찾고 가하오, 만, 우리 生活에서 物價를 眞價, 우리 라는 것은
 생애를 살 수 없게 된 것이요, 그러나 物價의 眞價, 眞價에 의지할 줄 모르
 그러나 우리가, 생애가 이런, 우리 生活의 어느 程度까지는, 自然的 眞價이라 하므로
 담보고 있소

제대... 消息을 듣고... 消息을 듣고... 消息을 듣고...
消息을 듣고... 消息을 듣고... 消息을 듣고...
消息을 듣고... 消息을 듣고... 消息을 듣고...

兄!

消息을 듣고... 消息을 듣고... 消息을 듣고...
消息을 듣고... 消息을 듣고... 消息을 듣고...
消息을 듣고... 消息을 듣고... 消息을 듣고...

消息을 듣고... 消息을 듣고... 消息을 듣고...
消息을 듣고... 消息을 듣고... 消息을 듣고...
消息을 듣고... 消息을 듣고... 消息을 듣고...

消息을 듣고... 消息을 듣고... 消息을 듣고...
消息을 듣고... 消息을 듣고... 消息을 듣고...
消息을 듣고... 消息을 듣고... 消息을 듣고...



法과道德과의關係

鄭禮會

우리는 一般적으로 法과道德과의關係를 論議하거나 同一視하는 傾向이 있다. 法은道德

의 近及이나 道德의 派生이나 法은 法을 生하는 社會의 秩序의

規範에 依하여 總稱되고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規範은 法과道德은 實際關係에 있어서는

을 示한다. 그러나 이러한 法과道德은 實際關係에서 法과道德은 實際關係에 있어서는

한關係를 맺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現今까지 有能한 法哲學者는 社會의 祖家 또는 哲學者들이 著書

最絶的인 斷斷本을 내리기 一두 直前의 論理的 矛盾에 빠지고 말았는 말을 이內規範의

本原論點이 아니라 法은 實際關係에서 法과道德은 實際關係에 있어서는 實際關係에서

여기에 이問題에 대하여 法이 研究하였는 法의 有名 法哲學者에 대하여는 法과道德의

問題는 法哲學의 研究의 法과道德은 實際關係에서 法과道德은 實際關係에 있어서는 實際關係에서

法을 示하는 社會의 秩序의 法과道德은 實際關係에서 法과道德은 實際關係에 있어서는 實際關係에서

그러나 本原論點의 法과道德과의關係에 대하여 一般적이고 傳統的인 法哲學者들이

法과道德과의關係를 區別하여 보고 있다. 法과道德은 實際關係에서 法과道德은 實際關係에 있어서는 實際關係에서

法과道德은 實際關係에서 法과道德은 實際關係에 있어서는 實際關係에서 法과道德은 實際關係에서

道德의 社會의 秩序의 法과道德은 實際關係에서 法과道德은 實際關係에 있어서는 實際關係에서

法과道德은 實際關係에서 法과道德은 實際關係에 있어서는 實際關係에서 法과道德은 實際關係에서

法과道德은 實際關係에서 法과道德은 實際關係에 있어서는 實際關係에서 法과道德은 實際關係에서

法과道德은 實際關係에서 法과道德은 實際關係에 있어서는 實際關係에서 法과道德은 實際關係에서

法과道德은 實際關係에서 法과道德은 實際關係에 있어서는 實際關係에서 法과道德은 實際關係에서

法과道德은 實際關係에서 法과道德은 實際關係에 있어서는 實際關係에서 法과道德은 實際關係에서

法과道德은 實際關係에서 法과道德은 實際關係에 있어서는 實際關係에서 法과道德은 實際關係에서

內面를 法律의 是인 것이고 道德은 內心만을 対象으로 하고 있다는 結論이다
 事實에 있어서 法律 道德의 사이에 이의한 差別이 있다는 것은 否認할 수 없는 때가
 많았었다. 一例를 들면 所定料金은 支拂하면 水道를 열지 利用해도 法上
 으로 繼續되는데 假디 給水 量이 不足하고 水道施設
 不足한 때에 可反的이면 나오는 물을 止하는 것이라 도 絶對한 것이 道德上
 으로 모른 것이야 이것은 國民의 良心에 있어서의 要請된 것이다
 必要한 경우 不拘하고 물을 根원이 자꾸 뿜는다면 法으로서의 斷斷할 수 없다
 겠으나 道德으로서의 非難과 苛責을 免할 수가 없는 것이다
 是則도 法과 道德과의 關係에 있어서 法은 強制가 있으나 道德엔 強制가
 없는 것이 區別方式이다 이것이 現在 法과 道德의 區別의 明한 通說이다
 事實上 法은 違反하면 刑罰의 制裁를 出하지만 道德을 違反하였을 때의 是
 무런 制裁도 出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거나 法의 強制可能性 道德의 強制不可能性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法의 強制可能性이라 하는 것은 平 刑罰의 是 強制執行의 是 法例인 強
 制의 是 根元의 是인가?
 勿論 法은 主로 外面에 나타난 行爲만을 對象으로 하는 行爲에 처하는 法의 強制가

制裁로서의 役割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나 이러한 強制手段이 不足上 法을 통하지 않았
 다는 것뿐이지 理論上으로 充足한 道德의 支配原則이 들어가지 않는 人間生活에 있어서
 部分的으로 道德에는 強制가 없다고 斷言할 수 있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卽 道德의 分
 野에 있어서도 刑罰이나 強制執行과 같은 法的 強制가 없다고 할 수라도 無行된 경우
 는 良心의 苛責 親戚의 難散 新聞紙上의 露表等도 法이 不足以 強制가 된
 것으로 보거나 이런 통로로 보아서 道德에도 또한 道德적인 強制手段이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세째로 法과 道德과의 區別은 法은 假言命題로써 表現된 規範이고 道德은 定言判
 斷의 形式을 取한 規範의 法과 道德과의 區別이 있다 卽 一般적이고 傳統的으로
 일러 내리오는 通說이다 그런데 近代 民主主義 政體에 있어서 國家의 法은 社會秩序
 을 維持하는데 必要한 最少限度의 行爲만을 規定하였고 爾來의 社會生活은 自
 由이고 良心에 맡기는 程反로 充足하게 道德의 맛기고 있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充足하게 道德만 맛기였으나 故々 社會變遷에 따라 道德의 觀念
 이 低下되어 가는 傾向이 있어 하나의 道德의 法의 規律만으로 應되지 않는 形像이
 는 것이 現代世界 各國의 傾向이다 例를 들면 經濟回墮에 있어서 貧窮은 資本家의
 道德的良心에만 맡겨두는 部分을 資本家の 標準한 生活가 생기어서 社會

正義(判例法等)이 아니고 하여 判例間の立場之 法으로서 規定하여 適用하게 되었다는
이다 그러나 法의 法으로서 道徳의 介點을 縮小시킨다고 해도 道徳의 低下로부터
오는 不美한 行動을 究絶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道徳은 史의 道를 포함하여 더욱 社會時代적으로 展開되어야 할 것이다
美上院 議院 院務 院令 (Fulbright)가 판례를 法의 가장 強한 敵은 國
으로 國의 武裝 攻襲 敵은 國類가 아니다. 內閣 府의 對인 法의 道徳의 廢
敗가 더욱 큰 敵이라 하고 말하였다.

이것은 法의 道徳의 重要性을 可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道徳은 社會
生活의 根本部分의 核心을 維持하기 위하여 있는 法規範보다 더 廣汎 大範圍
한分野에 及하여 있는 것이다 그리고 道徳은 社會生活의 現代에 있어서의 最良의 道
徳을 道徳을 道徳으로 登場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道徳의 道徳은 國家의 道徳 또는 法의
道徳라고 하지 불리우게 되었으며 또한 國家의 道徳으로 登場한 道徳規範은 道
徳規範의 妥當性의 根據가 된다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다



故郷

純昇

나치 자상은 매미가

靑포도 그늘에서 울고

할아버지가 나한 나그네 밖에 없다

故郷이여 한결 한결한 七月

내 七月의 浪漫을 멀리하고

나의 맞은 산과 강을 서울에서

이제라 이기지 못하는 살림에

유달리 靑포도가 그립다

故郷이여 흥얼거가 달가롭다

죽은 가슴의 패기로 가지지 못하는 것 없었

살은 허한 후를 질리게 하니 故郷이 흥얼거 달가롭다

또 그리 할로 보아 靑포도가 익어 가면 수레바퀴

흔에서 의의간다 서울은 문지기라 저미는 가지니 울은

일흔이 의의 하 달가롭이 부러워는 옛날 같은

꿈이 서울위저라 또 그리워라 x





詩 望 鄉

張 彰 秀

나의 괴로운 心情은 한없이 달려나 보련다

검푸른 하늘 끝간데 가다가 가다가 그칠 때까지

그리노라면 원주하는 心情은 멀리 멀리 백여간 풀길을 타고

너그리는 故鄉의 품속 계신 곳으로

그리하여 어머님 품안에 안겨볼 때면

죄은 가슴 것잡을 心情은 한없이 한없이 동소슴친다



詩 朔風

詩 故澤

조수는 落葉이 卷은 朔風에

波濤와 같이 卷추고

차늘한 冷氣에

귀위강이 氷의 우는 밤!

들가에 木葉이 卷치니 蒼아 붉은 木葉

대풍이 波濤처럼 卷추나

아! 昨하년 六月에

씨베리아 朔風은 溫知한 天地를

뒤흔들이 卷은 채 스러간다

구의 말 차욱막아 拾萬葉을 지어노고

平和와 希望의 불꽃도

명멸히 卷은 燈籠처럼

내가 설아흔들 卷아나온

별항 卷은 산 밑

感嘆의 새를든 木葉

귀위강 城으로

귀위강의와 落葉이 卷빛을 戲弄하며

수석의 것만 주되온 卷장 卷번!



그런다. 이 외가이 다. 현어진다.
 이리신지. 5선리. 바티드리는. 또는이 있음에. 용인된다.
 만개의物件은. 사려있다. 2월나. 現現한다. 거기에. 敬虔하게. 意味是. 神의思念을
 達成한다. 晩秋의詩가. 12다.

유언이. 是實에서. 가다키고있다.
 만종의. 바외가이. 바외이. 현어진다.
 지진. 지방위에. 좃는다. 빛과와같이
 어찌가고있다. 좃는다. 빛은. 2월나
 빛을이. 초흥. 2월나. 2월나
 만종의. 나란이. 나. 2월나. 2월나
 만종의. 나란이. 나. 2월나. 2월나

이와같. 만개의續續. 이반중에도. 2월나. 2월나. 2월나. 2월나. 2월나.
 2월나. 2월나. 2월나. 2월나. 2월나. 2월나. 2월나. 2월나. 2월나. 2월나.
 2월나. 2월나. 2월나. 2월나. 2월나. 2월나. 2월나. 2월나. 2월나. 2월나.
 2월나. 2월나. 2월나. 2월나. 2월나. 2월나. 2월나. 2월나. 2월나. 2월나.
 2월나. 2월나. 2월나. 2월나. 2월나. 2월나. 2월나. 2월나. 2월나. 2월나.
 2월나. 2월나. 2월나. 2월나. 2월나. 2월나. 2월나. 2월나. 2월나. 2월나.

人間의 感慨가 眞白으로 거론이 되고 이와 같이 아름다운 精神의 解脫이 되니 부부
 러므로는 것은 運命이다 하는 谷川의 碎落한 해사 (해루타린)



依 說

廉 記

이 다를 廢女들의 작은 依說이 었다 한 해가 오고 또 가고

蘭이!

네가 꽃을 두고 내가 구슬을 주는 蘭이 자라 해는 흘러 갔다
 해가 흘러 가고 蘭이 들이 내자 내이 蘭음을 史보지 못한 채
 承 承에 부친 아비가 되니 蘭해도 海棠花之 지의 봄之 지나 보자
 蘭이! 蘭이!

네가 죽은 뒤로 무의 네 음부는 蘭개 자랐나 蘭을
 큰 주재에 나를 蘭다고 나스면 오 주이나
 봄을 즐긴 내서 蘭이 아담아라 나를 깨는 것
 보란 지는 봄을 농치 못함에 었구나

61
 나에게 蘭은 부처의 蘭은 蘭은 蘭을



62 주러는나 너는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저를 보 잊으세오

蘭이

너는 나의 눈물을 흘려 보느냐

내가 아 마나라 할 때

비는 감을 지고 너 같은 먼개치며 깨녀진나

말도 깨려하면 바라는 일

나는 울고 울고 또 울며

아 蘭이

너무도 슬음이 아름다워구나

너무도 수렴은 달미이다

나는 물시재 너를 사랑 했구나

산에 오르니 그들 뒤를따르면 그들엔 너의 무늬가 가 여기라도 보구나

나의 풀한공이 무늬흔이 여기라 한다

酒葉花는 故아

너를어 가고

또 물을이 오면

故古를이 故說은 故아지



그들은 시집을 간다
 몇해를 두고 우는 말이
 지는 꽃은 지프라도
 가느라든 가르라도
 네 모양은 슬음이 괴미
 느러치간다
 蘭아

이 한밤 슬픔 저 내리는 내가
 너는 흩날려지고 살아나는 별거
 눈이
 눈속같이 눈을 담고
 울음눈 흘피 눈물러고
 꽃고
 나네게 이야기 하려 온다

바라보는 때나 나의親友의 慈恩을 수고히기 못할 줄 없다

그러서 나의興味가 가졌으나 辨事하리니 慈恩은 의의론지 살피고 말았다

그러서 나는 또한 尊敬 하신 先輩兒任을 訪門하여 또의 말을 그치며 내며

先輩의 慈見을 물었다 先輩는 大환영이다 技術이라 것은 무엇이든지 習得

하여 두는 것이 余의 俗政에 功功은 州府고는 州府의 功功은 功功이 功功이

五 卷이 不試하였으면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하여 나의 慈恩을 不試하리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及試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下에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師아직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있었다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는대로 그러기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逐記라는 것이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関心이 들었기다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에외서는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에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休 아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手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功功은

田穀外展王

襄 瓶

西曆一千九百一十一年 即 春秋 西曆 四月 卅日 中 가을철을 가르켜 天高馬肥다 燈火正親之前
 이나 하여 冬은 李氏의 라고 할라. 나는 여기에 가을은 他 卿의 付의 나그네들의 御
 之 對의 라고도 하고 실라
 나는 가을 禮儀에 참여 보기도 할라. 가을은 높고 구름은 희박하다 別의 付의 들이 望
 雜音들의 는 計게 고양은 通의 出어 든다 子子사 지금쯤 農村에는 農家들의
 勞苦의 報答하는 報酬期 即 秋收期이다
 節다란 春에는 五穀의 부르익고 雨의 少의 重 顯 黃金波는 山頂들의 다음에 感
 穢傷의 는 田의 所에서 農村에 空을 갈은 水是 怨怒의 狀에 似다 水가 行을
 은지 五 雉 旱年을 當어 거기에 連連와 變는 지고 之外 變
 그 海의 나마 遙江의 對한 變가 만을의 認識에 到었다 그 變는 守望보라도 客觀的으로
 是 變가 變로 바와는 觀만인것을 小 變수 특 나는 子孫히 治所 보았다 小 變은 外의 變
 外部에 行의 即 環境의 不週知로 因하여 難問의 부딪힌것이 變추가지가 外의 變
 事變은 是리 말하기 難 衣食住의 豐足을 말한라 小 變은 變는 變의 變가 變
 是 自備치 못했으라 小 變의 變은 變의 難問題는 兵役 變인 變 小 變은 變의 變 變
 變의 變은 變難은 變이 變 變할수 變었다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백고장자랑

K
丁巳

백고장은 白谷 林과 清泉이 동쪽 자그마한 山골 마을이다 中央線 丁巳 列車로

내수에 到하는 것은 午前 二時 三十分 이었다

날씨가 晴爽한 가을 날이며 市內에는 보양되지만이 書務을 이루고 있다

爽心을 얻고 卍스 停當으로 발을 들었어

映少산 巖洞이와 一口의 井이 있다 全然 卍스가 없었것이 眞후인지 不祥이치 然은

卍스가 한대 있었음으로 그날의 路를 적으나마 덜게 되었다

달의 卍스 장가엔 卍스 卍의식이 고개 속이요 초가집 집은데는 卍는 대주

의 卍를 판다 卍를 부사게 한다 卍한 卍진 소리와 함께 卍서 松林속으로 車는

달빛이 卍리가 하면 山골에서는 草堂의 卍리 소리를 들을 듯하다 卍리가 卍에서

山의 卍에 卍가 卍線을 이룬다

어느덧 車는 故郷에 가까히 왔다

堤川서 두니키로 허리진 江原道の 西南方의 狭小한 村忽利이다 지나갈은 山風

景은 모든것이 크길같고 더욱이 맑은 空氣는 精神의 吐息을 일으키며 시내물

소리 自然伴奏로서 山소리외 長短을 맞추며 그속을 달리는 나의 심회는 浮動의

故郷간은 山골길은 恰然그대로이다

어느덧 달리는 車는 감간 夢중이 涵니 日月 동안이나 山을 쿠형 巒한 나에게

한갓 哀愁한 感이 생기에 車窓의 風景을 내 보기에 餘念이 없다

에 自動車의 引擎소리와 함께 울리는 驚鐘은 나의 視線을 돌리주나 峯巒의 水鏡

鏡反의 거리가 있는 뒷동산위에 희게 뻗어 기친한 十亭架는 나의 故郷의 秋의 상의 한

이 十亭架의 그림자와 아울러서 淸淨한 말미 들것이다 山을 승강을 江

上流의 우리 故郷의 개울은 가을을 감입의 汗증의 말아친다 婦이 十亭架

友의 小江이 淵이 貫지 않음 淵泉江은 어진이 水泳場에 遊樂하며 여기저기

散在하였는 果樹들은 말은 물과 더불어 희귀품을 約속이 된다 春 初 江

위에 三、四人의 女자들이 빨래 방망이를 敎역이 울린다

위에 三、四人의 女자들이 빨래 방망이를 敎역이 울린다

위에 三、四人의 女자들이 빨래 방망이를 敎역이 울린다

강도 방은 梗쪽으로는 우리 고장의 前方을 지키는 듯한 城과 같은 塹防이 約 二 三
東西쪽으로 장엄이 들어져 있어 黃金초장의 古의 물은 비간 같이 장디만
의는 등등이 비친은 은모 金銀초를 닮는다

어긋나고 장에 들어와서다 바로 보이는 집이나의 집이라 응기조기 塹防이 있고 父母任이 가
나의 집이라 어길때 승려 장기하는 金銀細함이 보인다

동성만은 價에 있는 塹소는 다 護神의 殿으로인함 李朝武營자국이 雜木舍에서 나의 고장
을 구려되며 괴석들은 층층이 있어 각이 길르듯 石程水程友이하
대가 初가을이까 清松는 陳하늘의 기의 黃金초 故으로 表하였다

뜻봉이면 바닷새를고 초가들이면 햇빛이 유는 代表의 位에 우리 고장의 塹防은
기조하는 것같이 산재나 無을 金銀하

前述한 酒泉은 바로이 塹 밑을 취하고 들며 金銀초는 피서편으로 장을 절은
金銀초 塹防은 塹을 지키고 塹防의 집이 여러 無教이 塹을 塹하

장미는 우리 고장의 나뭇배가 塹을 塹을 塹하



그들은 또하자면 望小의 以之 人參 水 宜 勿 以 之 人參 水 宜 勿 以 之
 그들이 그날 어느 時代의 文 두루 清酒가 나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날의 의
 이 神童任의 造化 어인지 보이고 착한 사람이 가면 말은 清酒가 좋다고
 한다고 모은 한 사람이 가면 濁酒가 좋다고 한 하 하 濁酒가 좋다고
 그러나 스승은 清酒도 濁酒도 좋다고 알고 다만 맑은 물이 흐르면 濁酒가
 이 문에 濁酒가 있으며 古代의 惡習 보도록 此 其 惡習 보도록 濁酒가 보도록
 이상 같고 濁酒도 清酒도 좋다고 알고 하지만 맑은 물이 흐르면 濁酒가 보도록
 특히 江原道의 一域 인 咸上 天口 을 찾 기 아 리 며 물 안 에 濁酒가 끼어
 濁酒도 清酒도 좋다고 알고 하지만 맑은 물이 흐르면 濁酒가 보도록

濁酒도 清酒도 좋다고 알고 하지만 맑은 물이 흐르면 濁酒가 보도록

아름답게 생겼고 그 때 도 나 도 이 세상 에 태어나기 전 이 때 생겼고 이 때 도 아담 과 이브 의
時代 우리 들은 人間 에 조금 이 나 마 주신 도 珠算 盤 을 財 나 시 數 를 財 나 시 錢 簿 計
는 單 結 本 차 알 지 못 하 고 살 아 는 때 가 있 어 소

그러나 1 史 時代 以前 의 그 때 이 때 財 貨 物 과 價 值 是 何 說 에 지 나 지 時 價 是 何 說 이
戶 吏 升 記 錄 日 正 人間 이 俗 生 活 을 維持 是 何 說 이 租 工 是 何 說 是
財 生 活 을 營 生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아마 이 때 1 史 時代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그러나 벗이여! 너 무 悲 觀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그러나 벗이여! 너 무 悲 觀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그러나 벗이여! 너 무 悲 觀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그러나 벗이여! 너 무 悲 觀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財 生 活 是 何 說 是



在界 "도파쓰"

K 記

科學의 發展期에 如世記 現今 韓國에 行는 人工人間生産에 成功하거
 是 同該當者의 義務인듯 生覺하고있는 自由世界青年들은 하거고 一大數手聲
 今則付 二敗越을 注自利 且고하거 即 韓國에 行는 五洲最早에 人工人間生産
 善 研究하거고 是하거 各心의 競爭을 望하거고 三時에 成功! 一日生産 如美名 經
 續買의 數多牙 生老生 胡는 進하거하
 이時에 生老生 人體에 原子注射을 站는 分 三日間의 唯 以入의 功하거하
 社便 韓國軍隊는 이의 軍事訓練을 마친 人造人間과 完全可 交替完了하거 中共
 軍의 人海戰述는 이則는 冬用之物의 功 功하거하
 社便在 界各國에 行는 止는 外手別 人工人間을 韓國으로 注文하고있어 會務社
 韓國의 經濟界는 이 造人間 社製造는 알미아다 一大好景氣를 이루고있어 安
 定은 一年以內에는 是等爲 指示 造人間의 功하거하

(Faint vertical text, likely bleed-through or a second column of notes, mostly illegible due to fading and handwriting style.)

外二



나와이제이몸하루가어떻게

崔可淑

해를아 두리 또한에 올라가지 양스런
 나는 한가한 한나절을 지붕이 떨어진 방안에서 소일하다가 여전히 마음잡지하여
 동선과 어울려 놀고있는 벗조우래기한데 물었다
 가보 두라나 피려가 구별이 배하하여 제라라 작간하는 고손을 알외우리만치
 치안자랑에 삼사시여 또 입으로 속이 불여 파구 개개로 잘여튼단
 언제봐도 리원정스려운 어란이들 나는 하늘이 기쁘므로 후뜻이 부끄러움을
 느끼며 손을 머지렸타
 그대야 목이두가고 연회도하고 인숙이도가고 또 안회도가고 우리 무투가자음
 나는 나처럼 아희들의 이름을 부르며 제본은 나현이했다 그러나 나의 두손은
 그를 모후가 붙잡기에는 너무도 모자랐다 비록 손가락은 열이로되 그것을 하
 나 하가 붙들고 거절거라 리욱이 손을 기어올라가기란 당치도 않은것이과 나
 해나 내가 다름이 아니라
 연나 내가 친척 내가손가락 연저 잡았소 아니야 내가 연저 잡았소
 너원아들이한 몸이로 한이양고 출어있든 모침이 신지... 이러와가는 오지도가
 질로 못하고 흥거러 그르거러 다투기만할 기미기애자 그림 우리 고아부러

차례... 손잡기... 하라... 했으나... 이철수... 하였는지... 서로들... 눈치만... 살피며... 그제를
 그제...
 주... 그만... 흠... 옥이... 구... 인숙... 이... 하고... 양손... 별... 나...
 들... 옥이... 좀... 나... 강... 된... 것... 배... 감... 든... 것이... 있는... 때... 가...
 을... 하여... 불... 양... 게... 안... 으로... 팔... 겨... 간... 다... 남... 어... 낫... 이... 들... 도... 어... 려... 게... 걸... 열... 결... 언... 지... 나...
 도... 나... 오... 하고... 사... 방... 팔... 명... 으로... 흠... 하여... 저... 간... 다...
 모두가... 귀... 얽고... 찡... 찡... 하... 기... 만... 하여... 웃...음을... 머...금...고... 키...라... 되...는... 수... 밖에... ..
 되... 라는... 높...은... 하...음을... 쳐...와... 보...았다... ..
 다시... 한...번... 쳐...와... 보...았다... .. 그...어...린... 靈...心...의... 境界...!... 나...도... 알...지...기... 가...져...본... 그...한...界...는...
 푸...른... 하늘...에... 그림...그...리...여... 될...히... 바...라... 보...았다... ..
 역시... 하늘...은... 비...어...린... 시절... 하늘...과... 화...를... 얻...은... 하늘... 그것...이...였...다... 화...열...은... 생...강...은...
 엮...리...를... 물...었다... 한...가지... 두...가지... .. 자연...의... 하고... 불...을... 깨...미...는... 조...공...이... 무...치... 권...한...
 책...하기...도... 하지...않...아...여...의...는... 쓰...러...주...었다... .. 그...러...자... 여...기...저...기...러... 두...루...투... 모...두...들... 결...여...은...과...
 손...에는... 신...문...치...에... 무...연...지... 두...루...투... 산... 조...그...만...봉...치...를... 갖...았...다... 사...과... 반...쪽...은... 부...끄...러...
 은...곳... 두...손...으로... 껍...싸...꿔...어... 돈... 珍...환...은... 꼬...기...꼬...기... 와...라... 줘...어... .. 여...너... 뒤...러...? ... 돈...이...
 산...에...가...면... 살...재...있...다...? ... 여...기...서...사... 뒤...살...까... .. 그...러...그...러... 비...루...무...가... 있...다... 우...러...이...류...무...사...자...
 이렇게... 조...재...대...여... 구...명...가...개...로... 물...여...가...리...는... 여...섯...년... 드...러...있...는... 한...잡...은... 사...은...과...

그절로는 도무지 차라가 가절함을 것 같아 나도 버주머니의 몇십환을 통러러
욕이러려 너이들이 줄와 하는것 사름하고 시켰드거 이것저것 사들고왔거
페니 해기러려 장풍이 되여... 자 모두들 심외한테 말하고왔지라 하고 물어
본뒤에 받을 피엿라.

이 어린이들 기껏해야 열살짜리가 제연은 이 조무래기 틈에 끼여 나도 파사
어려진것처럼 와아어리이 어들이지않게 제연도 자존심도 들보지않고 웃을때 마
구 웃고 뿔뿔 같이 뛰며 어른의세계를 벗어나는 묘청을 맛보았라

이제부터 비탈이라 그야말트 별적송이된 등산 맨 로러투성이고브리 신발속으로
드러가 거를수가없게 고여 아프라 애들아 우리시편고자자 신발듣고 가가 할
들면 이리취하고 언니 노릇 하느라고 두짝 한칼래성을 여섯명분이자 들고가자
니 총 거치장 스투원라

뿔뿔함을 알았든 꼬마들은 완결 토기모양 노리조러베크하여 노동흥이 뿔뿔
모르고있자 나는 무거운 물줄 여지못 이끌며 영사 뿔뿔하여 울렸라
아수면 앞강을순 꼬마가 언니발이 오세로 러기후러짐이왕 언니잡과되오
하고 소위치는것을 모래하고관할 기러조 있어 미미안 고러여 보였라

종파에서 볼때에는 그러 취와보기만 하든 이곳을 뒤러 이곳에서 함은필과사
내와 조거잡절을 염어놓는듯한 구름은지화 개머서기만하게 작개보이는 여러자들
차와 뿔뿔한들은 시골가는것이 보살게 이리뿔뿔 저리뿔뿔 한눈앞에 보는것이

의라 신비하고 저의라 는 뜻이 관물이라
 어-기원하와와 회를 뜻하고 어보자 하로 하늘이 어라 알았는 것 같과 마음
 이 후원해진과 인제는 저 사립들의 지적되는 오-는 사립들의 들이지
 동해에서와신 언지를 도해어러자 심호를하자 한번 두번 한번 마음껏 할
 을와시자 하늘! 언제나 내어러위에 있는 하늘! 언제 어느때 처와와도 심유
 이 리양는하늘!

어정제보면 하늘을 처와본다는것이 천문학자나 철학자 아니라 좀처럼 처와보기
 참지않게 생각키우는 이 하늘은 제아무리 바쁜사람인지라도 해-는 하늘을 우
 러본다는 이것이 얼마나 마음의 가황을 가지는것일까? 산을보고 바다는 보려면
 뻘쓰나 기차의 산세를러야 되지만 하늘은 그저 언제나 고개를위로 처들기만 하면
 되는것이라 그저 언제나 나를 향해있는것이라

나무가지 사이에서도 하늘은 보이고 빛과루끝에 달 넘어로도 보이고 아찬부엌
 에서 땅짓는 동안에도 우리들 통해보이고 어저서든지 보인다
 그어저서든지 보이는 하늘을 우리는 나무나 잇고 살아간과 사람은 지붕을 만
 들고. 창을 점간으로하고 두런은 커튼을 치고하여 하늘과의 절연물 어서 안습
 는다

옛날의 소박한 살원을한 그너들은 몸씨도 하늘의 신비의 아득다움을 알고있었
 든것같이 느껴지기로 한과 나는 문득 하늘과 구름의 매력을 가르치라스킨의

시계의 동쪽 끝과 서쪽 끝에는 빛이 멈추어 있고 있다. 해가 일출하는 것을 관측하
 는 시계간이 있고 그들은 정전관 관측으로 상하의 나침반 위상을 변형하여
 시계가 고고도 상각과 하하도 해의 위각의 차이와 시계의 동쪽 끝과 서
 서쪽 끝을 해의 위각을 변형하고 관측하면 빛이 있거나 없다
 그 결과 빛의 상각이지 못하여 그 동쪽과 서쪽에 정각하여 리비아는 영원적
 사막이 되어 에치고의 사막을 흑인들로 만드려 내륙과 해는 신화를 생각해보자
 나와 에치고 밖에서 아무도 없다. 출생의 별과 수위 비리다
 한밤의 남고도는 가을 하늘을 점고 또 눈부신 별을 하늘 끝에서
 수위인 자의 나침반을 가늘게 하여 관측하여 하늘 끝에서
 달나래 은각 아귀 달들이 아득해지고 눈앞에는 오직 조각구름의
 아우기도 없다
 포리다 제 주위를 둘러보는 천천한 에치고의 속속함을 바깥이 심고 가는 이외에
 에치고들은 자그나한 보타리를 끌러서 이것저것 노느며 영으라고 입가에
 에치고에 귀머귀다 나는 왜 그런지 이러라 앓기가 심하다 이리나
 에치고에 영혼뿐이오 대신 눈앞에는 북천과 관하게 되니 지붕과
 문지만이 보일 뿐이기에 이리한 황위를 잠시 바라보고 고압의
 안기고 싶은 카나의 고고의 찬맛을 몰래로 바라는 것까지
 다는 두눈을 감은채 해를 아 조금 수위 보류 저 하늘에 별이 있
 가 없다

그러나 지은 가는 하늘을 여기하고 웃우면 되고 웃음과도 웃음을 웃어내고 아
 르면 아드라고 열살할수있고 열년 열년하고 열년 안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있는 것
 을 아무런 회장이가 가면을 쓰지 않고 칼부타주 할 것이 자외선-선고고 심
 개가 보고 들고 쫓아 나의 그물은 보고 들을 일인 이 해를 나는 쫓아고 쫓아하러이
 그레도 열거를 회장의선 나의 모-드랄을 벗어 버려 선악과를 아가선 아담과
 아노가 살은 에덴 동산이 가 천영 즐겁기만 하다가 노예도 부르자 세내와의 어떤이
 골목대장... 여기서는 문화인정개 모이기위한 명곡을 쫓아가는 피로움도 있고
 아니 그르다도 문화인의기 무기하는 문-선자의 관철조차 있을수 없는 오지정인것의
 지만름 나는 어쩔과 벗마디애기를 주구만개 하였은 앞의 열렸과 나와의 인
 마이를 듣고는 현제정성이 마르다고 하였다 화살하나는 현제정인 감각에 너무도
 의현 하되만지 문각인을 가마시 느꼈다 그레다 또 그-말하기를 진실에 이
 현이외고도 지공하는 서슴치않는다고도 부연 하였다
 그레면 문각이라는 일종의 바보가 가담 생명체인 자신 감동과 안치할수있다
 는 이 현제에 나는 놀라지않을수 없었다 나는 지금도 이런사색을 갖는 특사권
 이 이해키어려운 마디, 들을바로 알고저 어도 허본과 그레다 나의 문각과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이런 동이가 모라져 그물기 꿩눈에인간 진실되다는 병으로만
 들을 피할수없는 입장에있음을 확신한 현제 이 무서운 현제의 화는곳에서 듣고있다
 도우지 알수없는 감정을 나는 그레 드려움으로 불이워지는 자신을 가해하리라

저희가 할뿐이다

내가 어떻게 지나마 잘라하기에는 아아도 너무나 사치하고 호화로운 곳에 귀족이
 못한 평범이 오히려 귀여나게 명을 받게되는 모순의 본연이 결민가하는 것은
 것이라 생각할수록 너무나 아픈 것이었고 그 귀 비취어만 된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것이
 무서운 자기학개속의 주물에 꽃진라 그과 아는 것이었다면 아와라 이부가 선
 의과를 여었다는 것과 나는 나의 본보의 자너로 형제자매를 가졌고 스승 벗을 가졌
 는 것과 비록 잘나지는 못했으나 불우한 운 드를 수 있는 귀 알하고 어를 수 있는
 애 알을 수 있는 고가 제과과 제자리에 자리잡어있고 또한 이것으로 신의나 도
 의나 정취나 허사나 등을 양심이라는 것에 바칠수 있는 이런 것 뿐인 것이다 모든
 신란이 다같이 갖은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사안간을 ...
 이렇게 못한가함에 공판회의 청판을 걸느니 文相文化의 최고봉이나하는 어리
 게지만 인성판은 아무런 구애됨이 없이 퍼들어 될수있고 또 흔히 퍼들어내는
 자와의 태연이 무려문지도 모른다 그저 문화를 모르고 얼마 안바가 좋고 그
 을 분간해주면 그대로 하고 알고하는 단순한 어린이를 좋아하지도 모른다
 열흘파랑에 관한 것 별개칠것해도 故비산우에 향수질은 양어도 제과를 마시지않
 어도 이렇게 앉아 의류부와 사과반쪽의 프반쪽을 씹어도 그물은 나를 언더를 아리
 라고라라고 외풍행이 치지않는 어리석은 어린이로 끝임으로서 내가 좋아하는것으로

그와나 아니다. 관지 그것에한 그치는것이 아니고 그런것을 꼭꼭히 놓아두게
 가려내고 배우려 자라날 그물이기에 나는 여러영계한 보아지고 또 그물물위한
 것을(龍)과자 되고살아 지기토 하는것이화 이것이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영연한
 전설속에 그와 나의무정물아는 무간이의 여러성도 구실의물과 같은지도 모른다
 운수 나는 여말에 신처진 것은 고루신술 보았과 만일 이물살이 아리고 이자
 리가 아기고 서울 여러화환이라연은 천 천이든 이은살이라연 나는 것이 공주
 불 불량이게되고 여러종제제된 불점과 불이 리 구려진 자지로서 거별것이 영인
 가? 나도 천이든 아까의일대 틀려있다. 그와기에 해로는 천이 자라잡은 줄은
 깨 은대 살려달은 골보카리틀 예우고 영칠한 서하얀 영호바랑에 영하이
 운물이 차양살어 묘자하는 발간애또나 서양같은 암술을 그러여 물통한 재지코
 불 정령의과도해서 못꼭하게 이원저전 재간을 부려서와도 보다 에블호
 나라는 천망의해도 가지는것이리라
 그와나 음지 여러를물고 이리나는나의 혼강은 그것은 관지 나와함호 감쪽 속아되기
 은 정개바라고 스스로 권을한다(이것은관) 무남의 소위(원한) 해 수합은(여인이
 여러 들쳐하는 의화서의 예절은 또한 다져다물늘 아지못한재 스스로 권을늘 능히
 다져 들은 그것은 영술의 영연이라고도하여 바지함(리라) 그러나 나영서 이세상에 면
 드려서 자라나는 하나의 예술인것을 자랄한다

그루루라도 제아무리 온갖 심혈을 다한들아도 나와 꼭같은 形体와 더불어 의
 동위 形體를 보지 못하오 마음이라 이것을 들어 있는 形體는 만물이 내지는 못하리라
 잘 생기면 못 생기면 간에 바로 나와 같은 것을 ... 나 여기에 唯獨을 가지고
 산다 必로 못생긴 나였지라도 누가 나를 다할 수 있겠는가 오직 나 하나의 唯獨할
 수 있는 심혈을 아끼는 아량이 있나 비록 내세우고 뽐내는 것이 지 하위에서 없으리
 라도

흔히 사강들은 모두가 제갈관맛에 산다고 한나 나도 또한 이같은 잘나맛(?)
 이였기에 살았다고 함으로 잘라갈것인가 그제 알기를 초해서 3호화 삶을 가진 또
 남이 볼때 우수와 스텝이 불 철부지와도 같이 기를 쓰고 삶을 위해 나가려 것이라
 그우한이도 보고싶은 好品은 하늘아래이 속한 어떤이와 더불어 별것은 아니나
 서삼스런의 삶이고 살피도 하나 기꺼워진 것이 없다 그제 벗좋은 개살고 배에 되
 지않은것은 차라리 볼면 모르고 살면 상으로 어떤이만 못치 않게 무엇이든이 되고
 철이 나간 말인가? 그러나 어쩔은 나스 거었다 복안은 눈과 드려온 귀와
 더불어 지어 버린 수없는 눈속의 모든인 好品이 될 수 없는 것속의 이소리 1점의
 을 어떻게 볼는지 어떤이와 같을... 그러나 내가 죽어 어떤이로 자라나 보고 들
 으면 나는 또한 알부라도 뒤가 별말을 지어 내지 못하리라 하여 같은 살 송
 어찌날이 조수의 기한이후로 열말을 지어 내지 못하리라 하여 같은 살 송
 날까지 사강이 살아가는 길은 벗어 내지 못할 모든의 날을 전 아 중어의

무엇이 어진 時節을 거
 모호한 나의 아나나?
 나에게도 어진 時節이
 있었듯이 그들도 또한
 에 나와 같은 때를 맞을
 것이 내가 어리지를 바
 라는 것은 너무나도 허망
 한 욕심 자인 것이다
 이의 거처와 나는 반북
 하려는 욕심으로 장해를
 의지 할 것인가 허망과
 외로운 아나 어리지를
 바라 부지 않을 수 없다면
 뜻을 다하여 갈 것이지
 아니요 어리지를 위한
 내가 의에서 갈 것이지 아

詩

한가위시갈 PBU

비이삭 고개속의 숲물결치며,
 달빛은 草家집
 바람을 더듬는다
 뒷동산에 솔잎 떨어서
 울려 송편이요
 아라뚝에 新槽酒
 방울의 동동
 기쁨이 넘진 동산방내
 少年少女들
 너그대대곡
 사랑하든 구별
 오 구름구름 송편이
 故鄉의 향기 휘자



지 말았는 말을 故지향의
 피곳함을 고를지향은 또 어
 려이가 무척으로 동경하고 뜻
 을 갈구실 수 있는 마음
 한바다 물은 이 고리를 내려
 구름을 안들게 하여 下界에
 비를 부려 草木을 키우고
 배를 맺게 하는 해운 실은
 (하늘) 雲과 霧가
 온갖 草木과 鳥獸의
 의사를 또어려이 들을 귀
 는이 하늘 아래에
 내가 있음을 알며
 고사리 같은 소리를 한 손아
 귀에 넣고
 서로 위지고 흥겨워진 마
 음을 못내려 부르는
 바람이 내 머리 위 하늘
 에 날아다
 걷고 걸었다



개 의 주 문

李 良 淳

죽임 이란 두글자도 흔히 사랑의 임에 이르러지만 그 正體는 우리들은 가장
 握把 握하기 힘든 述語의 하나이며 眞上 보라 하면 眞 昏迷가 하는 것이다. 참으로 神祕-
 러운 것이다. 죽임이란 偉大하나 畏怖하기 하지만 이런 구판 소리는 人固이 自己
 의 人生이란 것에 不平하는 것밖에 別意味가 없는 것이다. 卽 違大하다고 讚揚하
 주면일에 一但 直面하면 그 恐怖에서 버서가지 못하는 것을 보아도 알수 있다. 單純
 히 生命의 終結을 意味한가? 이것은 너무나 倫埋的인 解釋이 아닌가 생각할다
 約 두의 말속에 이란개를 두마의 親戚에서 갖다 놓았다. 처음에는 귀여웠다. 아니
 어여버서. 매일이라도 조그고 심어다 그 해로 退言이 아닐 것이다. 미운 것이란 밤에 이물을
 찾아서 정신이 되는데도 이 말을 하이다. 구두의 한편 가엾기 드리고 이런 강된 것은
 귀여워하는 감정을 이리 귀여웠다. 玄因에 뜻을 쓴다. 치울 때는 不快했지만 이가 다한
 生命이 차라니 있을 생각도 할라면 오히려 귀여웠다. 밤에는 위험이 있을까야. 천장에 놓여
 들다. 밤새도록 자지 않고 정신이 된다. 아침에 티리러 가면. 화에 뛰어들어 머리를
 내뿜어 파묻는다. 험기 붙을 수 있다. 이리하여 이 물은 두개 물은 자라서 내가 學校
 에서 접해 드려 하 드려 하 하면. 달을 볼 수. 새발은 물을 한 드려. 희롱한다. 이게 너무
 귀여워서. 나 學校에서 養育했다. 나 學校의 養育이 있지. 아마 동물을 한 인간이 하지 않은
 감정의 표현이 될 수 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그물을 쓰러 하면. 그는 항상 고개를 따라다녀

빛자루로 흐려갈기면 혼돈자라는 뜻이. 비명을 울려봐. 도화
날라 배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손을 벌려보면 그는 도화야. 바깥기다와서 내 손바닥을 향하여
내게 손을 기울여. 내 얼굴을 쳐다보며 눈치를 살피네. 이런이가 나쁜 짓 끝에 너는 의
근치를 살피는 것과 우연이 다르네. 이리하여 둘의 생명은 잘라나 하나씩 철이 들어
출혈을 하였거. 점은 있지만 남게 되었다. - 새 시이 되었다. 펄럭 자랐네. 여기서 부러난
차차 이쪽 동물이 할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였네. 나쁜 짓 실패는 짓 더러운 짐승 같은
도라다. 이것이다. 닭구멍을 뜨고. 영조집에 가서 똥을 준다. 물에 씻어내자. 나는
국화의 개치를 일도 동여 화채. 입 바로 물이 감는다. 다짐 화기 새싹을 모조리 깎아버
버린다. 그외도 입으로 모조리 뜯는다. 다리를 모라 집밖으로 내쫓는다. 이렇게 마치
산술공은 작고 푸러기 같은 행세하기 시작하였네. 개장나운 때. 이런 일을 겪은 시간을
안을이 재는 것이다. 본래 내안은 거름과 달라. <의 大體命이 구름이 끼어 있음을
때가 없다. 흙이 꺼라라고. <의 未 知의 日 課에서 발견한 야한 <의 日 課
空流 아침에 이르면 벌떡 일어나. 구름이 끼기 시작한다. 물은 나쁜 일이다. 자
시원히 자지 못한 볼 깨가. <의 意 行을 도는 화가 화지만 이것도 다만 리만이 아니겠지
때문이다. 세 수라도 하여 기본 전환해. 세 수를 하다가 비수를 차르면 빈수가 있다.
한참 창조면. <의 本의 개가 구름이 다. <의 功을 벌신히 해를 이다. 배가
소리지르면. <의 本은 흐려진다. <의 功은 발의 남고 하는 뜻이. <의 功을 하듯 <의 功이 꼬리만
흐른다. <의 功이 발길로 무자비하게 걷어 찬다.

74
 조러면 約一여 러가 평방위에 나가 떨어져서 고약이 떨어져서 정도외 비명을 들리며
 구구적으로 나를 칠곳 / 러다 모여 달아난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 마음은 편안치가아나
 하였나 아아 처음에는 겁이도 그런 기본이 없었는 것이나 한번은 이를 다치고 치소들을
 들위에 놓았나 새우를 잡고 찾으니 없었었다 한참 찾았을게다 永南이가
 오빠치소를 개가 뒤기 들이갓비 하여 늘리는 화한이 러다오니 그들의 편이 러다 그치약
 의 달고코를 한 맛에 그것을 깨물고 있었었다 그때 나의 불화한 참기 못해사라지시
 열어나 지금까지 그때의 행동이 잘 못해사라지 않은 생각할수있었다 죄악 치소들
 하나 작만 하느니 너무나 힘겨운 정도로 해서 이것을 변명하려는 하치만 밧자류
 를 들며 慈悲無中으로 비갈졌다 치소의 없이졌다 꾀는 살아전라 나 한참
 잘아치며 겨우내 발대해서 찾았었다 후회 후남이다 개를 때리지 않았던들
 이렇게 후회 후남이 개지는 러지 않았을 것이나 이런 참언이 있나 학가 날학에
 소근으로 열만되어라 러나 변 배만 나 그 소를 다시 때우르므로 배를 아 使用
 하고있다 그러나 거기에서 기본은 초음속은 북수하라 그때부터 이 작자 작자
 이 러선하여 금은 구이의 손가락을 모을어 근상한 내고 신이란 신은 모로
 후회 후남이를 받는다 정도외 만들이 놓은 정계감을 허용이 놓는다 나 이제
 그에게 후남은 한때를 하시기 작하었다 보기만 하면 바를칠 한라는 죄의가냈다
 그러나 조금씩은 면 그대도 조금씩 작하온다 리금 생각하니 가없는 일이었나
 아나 개가 나쁜게 아니라 나의 무모한 감정의 사래였던게 타당할 것 같다

十月二十日 大우리는 가을의 아침이다 이제까지 한번더 개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은 없었나 아침에 일어나 알뜰히 퍼를 생각나 볼래한 예감이 들어
 우리 창문을 열었다 마당에 내가 한때를 쉰것인가 이래서 흰 거품들이며 비
 절망적인 듯한 고통스러운 신음을 하며 뒷밭으로 광만저더차며 몸을 떨며 자비
 있었다 가여웠는지 머리끝과 몸뚱이에는 거품을 더해주었다 나의 가슴이 췌
 덜컹 내려앉는다 내 마음은 괴로웠다 내가 과거의 러시랑은 하든 조그마한 생
 아나 운병해가 김희숙이 아니라 평은숙이여라 한껏 하로 ~ 죽어가는 생명을
 동상하기 귀찮아 압박기 하신들숙이라 그대는 고통없이 고통을 관에 데고 고통수
 은 스물 팔에 내쉬었다 철코 내사상이 들리지 않는 한 후회생시가 글을 더는
 과로했을것이다 인강포를 그루는래는 땅위에 ~ ~ ~ ~ ~ 아직 될가 人類文明
 嚴厲속에 은화사는 사함은 없을것이다 人生命이 끊어지는 直후에 대개는
 땅에 응어려져 태어났고 또 죽는 것속을 간라하고 땅속이 그림자하고 유언은
 알라다 사함이나 만능을이나 이와같이 시작과 아직만은 ~ ~ ~ ~ ~ 인류가 더 후
 動物의 화를 뜻은 극유과는 아무도 관개였을것이다 죽고 난뒤에 어떤 來來의
 時向이 이사는 宗敎만이 아닌 境界다 그것은 단지 魂魂속에 인강의 가치로
 測定하기에 絶對 심오한 것이지만 이 대지가 인강의 가치와 故郷의 魂生가가
 하면 관능으로서 그림기 약한 관리는 ~ ~ ~ ~ ~ 이럴까 따지고 보면

내는 이라잇 同紳의 생애를 考하며 한 생애의 원라 한 生애로는 으뜸은 이가야라
 그러나 이것을 考하노는 아니라 考하노는 이의 원라 아야나 大地를 모루
 하였을 지로 모루라 그러나 이 비구의 해결함이 인간이란 生애를 다라라나
 정신 이상 精神生애의 원 考하노는 다 考하노는 해수 하가 考하노는 가
 사는 한 가를 서 버기 모루가 나디 친나 스루 하게 하노는 다 考하노는
 하노는 다 考하노는 考하노는 모루나 재만 평 考하노는 가다 가 그의 지자 나인 지
 주스 나일라 우인 이라잇 가 이 모루나 果實生애 考하노는 가는 것 함이
 우인 재미 이라잇 하노는 처 그 제가 우인 考하노는 주나 가는 것 함은
 서버미 모루 가 考하노는 지 그 考하노는 것 함이다 날 考하노는 이나 考하노는
 모루나 그 제의 모루 동기는 모루 모루 지고 考하노는 모루 考하노는
 考하노는 하 考하노는 考하노는 내 考하노는 지 考하노는 모루 가는 것 함이
 나인 이라잇 나 주나 가는 生애의 考하노는 치 모루 가는 것 함이 考하노는
 이라잇 그 날 考하노는 재는 주라잇 다 그 考하노는

愧이니까 스승이 지냈을지 모르나
 이완 感傷에 헤매며 언뜻 懷의에 일컬을 것과
 各異는 三
 二 五 七 九 十 十一 十二 十三 十四 十五 十六 十七 十八 十九 二十 二十一 二十二 二十三 二十四 二十五 二十六 二十七 二十八 二十九 三十 三十一 三十二 三十三 三十四 三十五 三十六 三十七 三十八 三十九 四十 四十一 四十二 四十三 四十四 四十五 四十六 四十七 四十八 四十九 五十 五十一 五十二 五十三 五十四 五十五 五十六 五十七 五十八 五十九 六十 六十一 六十二 六十三 六十四 六十五 六十六 六十七 六十八 六十九 七十 七十一 七十二 七十三 七十四 七十五 七十六 七十七 七十八 七十九 八十 八十一 八十二 八十三 八十四 八十五 八十六 八十七 八十八 八十九 九十 九十一 九十二 九十三 九十四 九十五 九十六 九十七 九十八 九十九 一百

愧이니까 스승이 지냈을지 모르나
 이완 感傷에 헤매며 언뜻 懷의에 일컬을 것과
 各異는 三
 二 五 七 九 十 十一 十二 十三 十四 十五 十六 十七 十八 十九 二十 二十一 二十二 二十三 二十四 二十五 二十六 二十七 二十八 二十九 三十 三十一 三十二 三十三 三十四 三十五 三十六 三十七 三十八 三十九 四十 四十一 四十二 四十三 四十四 四十五 四十六 四十七 四十八 四十九 五十 五十一 五十二 五十三 五十四 五十五 五十六 五十七 五十八 五十九 六十 六十一 六十二 六十三 六十四 六十五 六十六 六十七 六十八 六十九 七十 七十一 七十二 七十三 七十四 七十五 七十六 七十七 七十八 七十九 八十 八十一 八十二 八十三 八十四 八十五 八十六 八十七 八十八 八十九 九十 九十一 九十二 九十三 九十四 九十五 九十六 九十七 九十八 九十九 一百

愧이니까 스승이 지냈을지 모르나
 이완 感傷에 헤매며 언뜻 懷의에 일컬을 것과
 各異는 三
 二 五 七 九 十 十一 十二 十三 十四 十五 十六 十七 十八 十九 二十 二十一 二十二 二十三 二十四 二十五 二十六 二十七 二十八 二十九 三十 三十一 三十二 三十三 三十四 三十五 三十六 三十七 三十八 三十九 四十 四十一 四十二 四十三 四十四 四十五 四十六 四十七 四十八 四十九 五十 五十一 五十二 五十三 五十四 五十五 五十六 五十七 五十八 五十九 六十 六十一 六十二 六十三 六十四 六十五 六十六 六十七 六十八 六十九 七十 七十一 七十二 七十三 七十四 七十五 七十六 七十七 七十八 七十九 八十 八十一 八十二 八十三 八十四 八十五 八十六 八十七 八十八 八十九 九十 九十一 九十二 九十三 九十四 九十五 九十六 九十七 九十八 九十九 一百

봄빛이 깃든 아침

JCS

해뜨려는 아침 봄 동산에선

微風에 흠기는 봄기운은 후생재

이슬 방울 반짝이는 新綠에선

은하의 꿈기는 초가한 푸르새

종알이 들이른 풀밭에선

햇살따라 들려온 아롱살포 뱀목이

내사 妙惚한

달빛의 憧憬

흔한 봄빛이

깃들인 아침!

결혼

李奉燾

九十年이 昔은 夢에 말대질코

기리빛 夕陽이 夕陽이

기리의 소년이여

초라한 그 夢의 夢이

소리를 奏기려나

그대로 사랑이 그리운 너라

갈곳은 何處 何處 何處

수월 何處 何處 何處

선을 夢을 何處 하라나

영광 何處 하라나

위안을 何處 하라나

가슴 何處 하라나

없드라나

自己의 理를 講하는 것이 生存 運轉에 有한 功을 다 具한 人을 善人이라 하면
마음 속으로 나 그의 成功을 爲하기 위하여 努力한 후 功을 立하여 入場과 治假한
來이 없는 것이겠지! 然하면 恒常 理想가 功을 立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 그는 功으로 未한 功을 立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나 그는 功의 功을 立하여 나 功을 다 具한 후 功을 立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즉 功을 立하여 주는 功은 功을 立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에 功을 立하여 주는 功은 功을 立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말한다

自己의 用境에 處한 후 功을 立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나 그의 功을 立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을 功으로 立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것과 功을 立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라고 功을 立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나 功을 立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공은 功을 立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공은 功을 立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創作

P 3

S 生



남신하게 차된것이 또 만나서 가는모양
이군.

물론이지 이번엔 C양보다 감칠이나 더
안일세. 사진 구경하겠나.

K군은 수선스럽게 흐주머니를 뒤지느니
와스포드에서 한창의 사진은 꺼내서 자

랑스럽게 P군에 맡겨 버려 버렸지
미인인걸! 배꽃처럼 화려하거나 재주대

그런 자라갈고 피유태어나 과학공부의
다칠때까지 연애한것은 못하진 뒤사기반찬

순간요. 각성회성들도 글만 연애원칙스스
완전. 연애완전. 그러나 초강은 구키지조

차. 차를잡음. 피었는게. 자전.
P군은 왕카하는것이 괴를했다
비를. 웃기안카운. P군은. 한마디.
P

구를했다.

아이사참아. 아무런 청탁도 없는지. 두루

한하고도 몇의사. 절의사. 하는지. 하지안

가. P군은. P군은. P군은. P군은.

나. P군은. P군은. P군은. P군은.

다. P군은. P군은. P군은. P군은.

라. P군은. P군은. P군은. P군은.

마. P군은. P군은. P군은. P군은.

바. P군은. P군은. P군은. P군은.

사. P군은. P군은. P군은. P군은.

자. P군은. P군은. P군은. P군은.

차. P군은. P군은. P군은. P군은.

차. P군은. P군은. P군은. P군은.

차. P군은. P군은. P군은. P군은.

차. P군은. P군은. P군은. P군은.

꽃으로 꽃이 드러노고 말았다.

다방에서 제이원 P군은 다시 지카도를

찾고나가 술맛 알산으로 올라갔다.

105 까마득한 층층이를 말한 후에 광

장에 올라스거 별서 잠은사람들이 올라

와있었다.

축하의 지만지도 제가변치라 사출채 이것

만 생동적으리의 이런이들이 뒤를음박질

을하고 단풍이 어깨를 가르렸히 하고

쳐서는 붉은남녀 혹은 곱게입힌 여원아

이를맞고 출정계 이야기들하며 거저는

아찌와갈편 혹은 한현자적에 초라카제

값이 열거거 고향 하늘을바라보고있는 실업자

여의를가라 허비의 산골집은 애조적스온

나라나고 었는것이 사회의 현상 이었다.

P군은 한가쪽을 향한 초산산에 기대어

깊은 생각에 잠겼다

C군 아니 그의 학우들이 그를 며칠

씩이라 부름은 단연한 일이었다.

여인들과 사귄기회도 많았다 또한 피

로눈 그들로부터 편지도 잘리었다.

늘어난 체적 사대다운음성 이글로 불

러는 눈 한가운데 문득 웃은코, 풍우라

문안눈, 얼굴전체에 절형이 잡힌 이남

자요 천재적인 문변가로 고개에서는

물론 일반사회에서도 인기있는 그다.

외판 부족하다면 돈의맛을분 말하자면

여성들의 사랑은 구갈만한 풍부한 자의

를 찾아온 그였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충성을 누릴까마

라. 그의 마른에 청춘과부가된 이후로

반해이되는 도출생까지 노장 P君의

장성함을 희망으로 삼고 온갖 풍상을

겪어낸 그들 여학에까지 가르쳐주신

그의 어머니를 생각하여 이를 알았더라
그 말을 그는 미지(未之)로 알았거니와 그 말이
에 스물나섯이 되는 노릇까지 한 번도
술집이 없었지 않은 그에게도 이성을 여타
개 그리는 인간적 본성을 조물주로부터
받은 인간 P군이였다.

올녀름에 그는 생전 처음으로 허수용강에
간 일이 있었다 그곳에서 P군은 너른
나 의로운 자인에 노릇했다.

처음 노은에 음계들론 비판결같은 물결
시원스레 끓음 백사장위를 석양(夕陽) 지고
해수욕장 그대로 후회스런게 거기서 한산
한산의 아를라온 오승들!

이것은 그대도 한쪽의 아를라온 풍경화
였고 말의 태고적 어떤 들산을 연상시키
는 것이었다.

이것이 (한대 이상) 이런 문구를 임후

으로 되어야 효용승이서 태여나 고풍
승에서 커나온 자리에 절을 들느니
든가? 이런 생각을 하든 P군은 문득 생각
뜻이 가방승에서 한장씩 펼지를 고개
뒤었다.

P씨가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사랑의
관 절코 승계승의 알은 장안의
거다 시간의 낭비는 알은 것이며 노를
따분분의 절은 남더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쪽에 고치는 것은 다그려
고 생각한거다 그것은 인생의 슬픔은
아직껏지만 대부분이라면 과감은 아
니겠지요

저는 사랑을 모르면서 애호를 아시
려는 P씨의 태도에는 한성할수있을
가과

가과 초양의 편지를 읽으며 이
가과 초양의 편지를 읽으며 이

가과 초양의 편지를 읽으며 이

철은 알고 또 읽었다

다 희망과는 차남을 P군은 어둡다는
희망지를 후회한 것은 우익의 원수였

다 그 희망은 그 때는 상면부지의 相面不
起의 사기였다

P군은 한살에 한 번 다 두 번 무효로
원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반쪽 하였으며

희망도 역시 아무런 불명 없이 원지를 보
내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말만 한 희망과 자기와의 사이
에는 큰 차이 사랑의 양이 돌아가고 있지

않는다고 의심 하였다
아니, 그렇기에 읽어서는 다들 지면장 P

군은 분명히 희망을 사랑하고 있다고
관전 하였다

그런데 P군은 잠으로 돌아와 용기를
다하여 희망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편지를

서고고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날 밤 동산에 오고 잔 편지를 통쳐서 다만

외로운 두 남자가 되는 것 그리고 스물셋
년 少年의 사랑과 토번타라고 세차

한 성격의 소승자라는 것 등등의 무리
단편적 상상을 가졌을 뿐! 제격이 어

떻고 열흘이 더 걸고 잠안러오는 이런
지 그러한 것은 전혀 모르고 있는 편지

양에게 사랑을 고백하자
만약 四年후에나 무당자를 통쳐서

여 공부는 차등오면서 한 번도 열십
은 이르러본일이었는 卽시처럼 누가

바질 높은 마스다면 어떻게 할까? ...
하기야 스물셋이라서 스물셋이 아니라

만... 그러나 아무 생각도 불확실함이
키질한 것만 같아서 그런지 불친통기가

나질 것 같다
이러한 편지를 써는지 사랑에 P군

은 것은 음기들 다 하여 두체로써 절고야
말았다

비상보다 앞서 최양으로부터 광장이었다

꽃피는 봄이 가고 가을의 여름도 지나

별빛의 가을이 이르러 오살까지 그칠

이나 들고 싶었던 사랑만하는 그 한

말씀이 있었거까 꽃이서 들어보든 그 말

함 오들며 들고보니 소년의 벽차는

가슴

P씨는 나를 알지 못하나. 전만은

말할이 P씨의 등교하는 모습은

향수를 통하여 볼수있었다

사랑하는 P씨!

전날 P씨 처참한 슬픔이

전날 P씨 처참한 슬픔이

전날 P씨 처참한 슬픔이

전날 P씨 처참한 슬픔이

편지를 읽고난 P군의 모습은 고수동

선취취 부두러 들렸다

소설에서 읽고 영화에서 보고 친구의

제서 듣고만있든 영화를 이젠 볼소체

힘차다 저 자랑스런 생가 컸다

이제야 연애나 들었던 P군은 이제 보

라는 듯 능수 같수 있는 한해 정인 사랑을

해야지 두주목을 볼군위가 드러났다

그러나 그는 일요일 최양을 만나는

이 순간까지는 절교 비리까지 않은 일종

의 불안은 P군의 의외살을 지루하게

하었다

지나선 신명파인은 이르지 못하자는 생

각이 들자 그 불안은 북살되었다

YCS란 한외의 승격이 된지를 허방

고는 바로 의외양외체 C군은 한아

장다

이제야 두주목을 볼군위가 드러났다

그러나 그는 일요일 최양을 만나는

이 순간까지는 절교 비리까지 않은 일종

의 불안은 P군의 의외살을 지루하게

하었다

지나선 신명파인은 이르지 못하자는 생

각이 들자 그 불안은 북살되었다

이것이 말의 양복은 무슨 양복인가?

아니야 이번 일로 인해 말일세
음? 일로 일하면 가도 출두명령을 받고
있노걸

어고바에 배피로군
그런데 왜 같은 말을 한두개 써넣었
양복과

양복과 양복이겐 다음엔 질문이다
출발할 사람이 있어서 그러지

양복을 양복이야 말발 사탕이다
어디서도 이제 바깥이 산계로군

원더한 사람 바쁘기 가아겠지
간계 주고말다가는 초리가 잠깐
있어 일어서 나가려하니

관 관적이었는지 가처가게 하여
새로 맞춘 양복을 내어주었다

고려하든 일로 일은 돌아왔다
P는은 분명히 바버서 편했다

면도질을 하고라시 C군에서 빌어온
양복에 서로한 바타이를 빼고 머리엔
오래한말에 기름을 발르고 분명히 생
전취음으로 양담배를 한갑사고 서구두
를 신고나기 시울기러가 아리라 뉴욕
이라도 할모할수있는 양복신사가 되었
다

그는 더워서도 못되어 에레사다방을 찾
았으나 아직 일흔 관제인지 왜지들만
이 전축앞에서 찬장을 하고있을뿐 다
방안은 텅바여있었다

그는 눈앞에 분이 쪽바로 바타이를
공에 자리를 잡고 담배를 피어물고는
얼굴 알지못하는 최양을 어떻게 알아
보려 처음인사는 어떻게할까?

걱정스러운생각에 잠겨있는 동안에 8시
반이 되었을때다

다방문이 바시시 열이 드니 천만 뜻밖에도
C군이 첫 드려었다
여기 C군 어쩔 일인가? P군은 장황히
물었다

C군은 대답 대신 웃어버리고는 P군 옆에
앉으며
자네야말로 어쩔 일인가? 원수는 의자 밑과
뒤에서 약간 타드니 모처럼 깔치(꽃스)와
달라 아야가 줄 활렸드니 자네가 활와
있거든 하우우

자실은 P군이 해야 할 말은 되려 C군이
하는 것이였다

P군의 인장은 진퇴양전에 빠져버렸다
그러므로 빠져나가 버리고 최양애 다시 만나기
도 편지를 쓸까도 생각했으나 그도
될일 스럽다고 그르록 친한 C군에게
장학갈이 속여온 일로 환도되는 날에는
두고두고 개의서 대신 구렁이관 별명을 뒤

잡어 쓸뿐만 아니라 최양과 몇가지
얘기도 훑찰렌데

신문을 사고 거의를 불러내고 하는 것
이 최양이 차차 오기 전에 나갈 C군
은 결코 아지였다

안절부절 하는 가운데 약속한 아흔시가
오분쯤 지났때 다방문이 또 한번
시 열이 드니 파란 하늘색 양장에
뱃치들만 세련된 미모의 여인이
웃음을 가득 싣고 나타났다

(최양인데 틀림없다) 생각한 P군이 이
러나려갈때 열이 앉았은 C군의 별칭이
떠나며
여, 이 소리를 지르며 꽃아나가 드니 뒤
라고 귀속말을 하니가 그녀인은 허리를
구르며 웃어냈다

P군은 반만 들었는 응평이를 다시
덜덜 주저앉으며 공연히 두안해서 열

III 글의 향수 거렸다
그런 P군 타있거나 못 또 오겠어

차라리 그놈의 말하니까 월가 타되고

가버렸던 공수연만 또 오겠다는게 어

이가 없어서 퍼장트 차기전에 들이느

나카버렸다

또 한 30분의 지났다 그러나 좀처럼

최양은 오지않았다

(그놈의 수장구러기가 다시 차타나기전에

사야만 다방은 가질텐데) 아현생각을

하고 있다

자세 반발 사람은 그러했나, 어스름이

왔는지 (근이 소러치는 바깥에 P군은

잠잠 나왔어

옆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글씨, 이슬씨에 만나기로 했는대, 월, 사람도, 양수들 한여겨론 나같이 어

외 二

잠있는 사람과 양수들 하게

가득이나 양을 물여주는 알곳인 친과

그런데 맞달수장은 누문가? C군의

황했다. C군의 수박에 피, P군은 적자야니 당

(후군) 한 C군에게 절호는 발각되고

말것 차라리 고병해 버릴까?

이런때 선수들 리트는것이 상책이라

생각한 P군은 완전히 고백하고야 말

었다

제니었다는듯 비할... 웃으며 들고있

든 C군은

하... 양은서 방아코에 리영준, 양

을것은 광연한 일이지. 그래 별시간이

라도 지켜려 보게나 하... 별서

별서 이야기는 사이에 사장은 열시

반을 섬고 있었다

P군은 참을수 없는 모욕감으로 느끼며
자만 열거될간의 끝이 아서 그들의
태산같은 바램의 물거품처럼 꺼져가
려는 처우에 호연실은 환멸의 순간
이었다

어째 열한시가 나와있는데 그해
터기라 되겠나? 하...
둘조 없은 친구에게 말이니 사
를 사의 과연 빨을 갈려 호분은
고 싶었다

가해가! 나만 파라도제가 살필한
모교. 철호 소개해주지
P군은 참아 관철할수없는 비련의
공제이를 무정계 하였드나 C군이
잡아끄는 바람에 못이기는척 그를
라 나섰다

C군은 P군을 이끌고 시공관앞을지
나서. 강으로 으르는길에서 성원다방

으로 드려가듯 이었다

다방을 드려스기 열마전에 에러다방

에서 C군이 타리고 나갔던 여인이

C군을 보드나 눈을 흘키면서

한시간하고도 반이나 더 기져 죽어있
아서 일부러 상간 표정을 짓는것이

더욱 귀엽고 아픈바탕과

순간 P군은 저평계아름다운여인과 사

랑을 속삭이는 C군은 형은아름다
생각하며 때때로적인 자외에 귀수를 스

키었다

P군: 인사하게

저 P.O.O 이라고 함시다

저... 최숙... 호...
하...
하...
하...

그연인이

인사를 카타말고 간드러지게웃관자

C군은 다방이 떠나갈듯 웃어냈다

P군은 영문을 모르는채 어리둥절했다

(속속) 다의 그하면 최후자양이 일인한
 언뜻 이러한 해답이 P군의 여러들 스
 치는 순간 실패하는 공상 이라고 단념
 문 하였나 그 후지 알수없는 일이었다
 P군은 C군과 그여인의 실패를 변질라
 처다보며 그들의 표정에서 무엇이 행으
 려야 할 것이라
 C군은 웃음을 멈추고 P군의 등을
 툭툭 두드리며
 놀래지말게 군이 사랑하든 최후자양은
 바로 나의 이종동생이였네!
 하여 그여인을 가르키는것이 참인가!
 최양은 열흘을 더욱 불타며 수침음에
 고개를 숙였다
 가세! 두사람의 행복을 비는 의미에서
 우리는 배가 찢어함세!
 그들은 타방을과와 행사를 갔다

역시도 마도과호호자나 시대전공 향하
 여 이르러 지듯 달렸다
 P군은 처음으로 행복이라느것을 스의
 여 자동화 후와참으로 흥하여 거의말
 고 도고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여어전
 고 실은 충동까지 느꼈다
 "I have no regret"
 그뜻 또한번 이런말을 의미여 실말과
 활유간에 싸였던 조공전의 말을 생각
 해보았다
 自動車는 어느듯 서해문는 저사 교외
 로 교외로 P군의 행복 실고 정해하
 게 달렸다 *

十月 月景 李奎德

그런진 후塚 眞眞의

참새소리 울리니

초가을 울음 임은

발의 갈 빛아래

悠々히 걸어다니

초리의 달빛 아래

별의 초록빛은

다윈 밤아 울은 속의

十月 眞眞의

一美은 문구네

男力의 하소연 김현우

그리움은 가슴을 흐들흐들해서 무성의 이물감을 찾았도

二昧은 그대를 따라내 이슬로 行장은 못잡하나

집신 간개는 구약은 화승용궁에 녹지않으리

드뎠은 강태는 풍우승기며 기적비의 무리리내

꾸러집하와 사막 가는길 처량안이 서려서

四境山川만사만은 흐르는물 어둠길 세힘으로

칸스리해! 數말은 모듬들의 길을 따라서

五가는갈 회의춘춘가키면서 햇발처럼 지우서

정열 가슴에안고 심외과 勇力으로 변발로 가자

六아마당 화판에 포행 불이로 한달 갈못 바기

七 병원 가지기 되자 온유학의 페음만기 다려

지루한 果개 뒤운 파랑의 리전 포개넘은 화

후의 용개늘내와 쓰킨안 못이켜 키면고만이라

八 金 불은 맞부키에 화한 빛발 리 빛은우키로

九 九월엔애애 울은 천안이온 폭은한 俠女의 사랑
을 이슬아 실개은 이시가지
十月의 울음소라 들을화 마다 헤야한 꽃들
애애마지애 나한애 애노애라 불리 들이리

一 四國通商條約(四國通商條約)

그런데 一五八八年(慶長十三年)에 德川幕府가 開港口の 指定을 하고 蘭(荷蘭)의 船隻을 許諾할 때 蘭의 船隻은 南緯 35 度 30 分의 北緯 35 度 30 分의 間에 航路를 許諾하고 蘭의 船隻은 南緯 35 度 30 分의 北緯 35 度 30 分의 間에 航路를 許諾하고 蘭의 船隻은 南緯 35 度 30 分의 北緯 35 度 30 分의 間에 航路를 許諾하고...

이와 같이 西政의 變遷(변천) 史(史)가 充分한 諸邦(여망)은 各(각) 其(각) 其(각) 國(국)의 權利(권리)를 保障(보장)하고 其(각) 其(각) 國(국)의 利益(이익)을 伸張(신장)하고...

又(또) 其(각) 其(각) 國(국)의 七(칠) 拾(拾) 年(년) 前(前) 一(일) 明(명) 治(치) 十(십) 五(오) 年(년) 九(구) 月(월) 田(토) 鑑(감) 綱(綱) 紀(기) 의 日(일) 本(본) 開(개) 港(항) 條(조) 約(약) 이 簽(簽) 訂(정) 된(된) 바 有(있) 으(있) 니(는) 矣(옴).

그리고 七年(明治三十二年) 日本通商條約의 政(정) 果(과) 議會의 先(先) 例(례) 를 遵(준) 行(행) 하(하) 는(는) 事(사) 가 有(있) 으(있) 니(는) 矣(옴).

日本의 許(허) 諾(약) 帝(제) 國(국) 議(의) 會(회) 에(에) 의(의) 호(호) 면(면) 서(서) 通(통) 商(상) 條(조) 約(약) 을 使(시) 用(용) 하(하) 는(는) 事(사) 가 有(있) 으(있) 니(는) 矣(옴).

그런데 明治三十九年 日本議會에서 議(의) 決(결) 한(한) 事(사) 가 有(있) 으(있) 니(는) 矣(옴) 及(및) 功(공) 勞(로) 를 庶(척) 幾(기) 希(희) 스(스) 며...

日本議會에서 議(의) 決(결) 한(한) 事(사) 가 有(있) 으(있) 니(는) 矣(옴) 及(및) 功(공) 勞(로) 를 庶(척) 幾(기) 希(희) 스(스) 며...

日本議會에서 議(의) 決(결) 한(한) 事(사) 가 有(있) 으(있) 니(는) 矣(옴) 及(및) 功(공) 勞(로) 를 庶(척) 幾(기) 希(희) 스(스) 며...

日本議會에서 議(의) 決(결) 한(한) 事(사) 가 有(있) 으(있) 니(는) 矣(옴) 及(및) 功(공) 勞(로) 를 庶(척) 幾(기) 希(희) 스(스) 며...

日本議會에서 議(의) 決(결) 한(한) 事(사) 가 有(있) 으(있) 니(는) 矣(옴) 及(및) 功(공) 勞(로) 를 庶(척) 幾(기) 希(희) 스(스) 며...

日本議會에서 議(의) 決(결) 한(한) 事(사) 가 有(있) 으(있) 니(는) 矣(옴) 及(및) 功(공) 勞(로) 를 庶(척) 幾(기) 希(희) 스(스) 며...

日本議會에서 議(의) 決(결) 한(한) 事(사) 가 有(있) 으(있) 니(는) 矣(옴) 及(및) 功(공) 勞(로) 를 庶(척) 幾(기) 希(희) 스(스) 며...

日本議會에서 議(의) 決(결) 한(한) 事(사) 가 有(있) 으(있) 니(는) 矣(옴) 及(및) 功(공) 勞(로) 를 庶(척) 幾(기) 希(희) 스(스) 며...

日本議會에서 議(의) 決(결) 한(한) 事(사) 가 有(있) 으(있) 니(는) 矣(옴) 及(및) 功(공) 勞(로) 를 庶(척) 幾(기) 希(희) 스(스) 며...

創作



이속의 속도

L D Z 記

한글은... 이속의 속도... 自稱이속記

그의 말에는... 이속의 속도... 數介속에는

그는... 이속의 속도... 二의自標에 到達

노래했는지?... 이속의 속도... 超音速의機가 나쁘고

노래하는... 이속의 속도... 色態는 눈뜨고있드라고도意

그는... 이속의 속도... 社會가 그를 그려잡을남이 의지

그는... 이속의 속도... 社會에 插入시켜

그는... 이속의 속도... 社會에 插入시켜

그는... 이속의 속도... 社會에 插入시켜

그는... 이속의 속도... 社會에 插入시켜

그는... 이속의 속도... 社會에 插入시켜

그는... 이속의 속도... 社會에 插入시켜

之時 張先生の 呼吸 天地の差が... 性熱이다르고 가르치는데도 조금씩 다르다
이 말은 것이 氣力이다고 하는 것이었다. (가만있자 또는 張先生

時間의진) ...
그는 呼吸은 하겠지 ... 이 육고 비릇이 되어버린듯 ... 時間을 하네

홍이보고 校內에서 하겠지 ... 呼吸을 하여 그의 日課가 始作되니 準備를 했다.
又今도 附錄하면 그 때로 崇正 惠探 安도 慈悲 등이 存지 勿念은 時間의

作效를 알지 못했다.
이말은아 典型的 速記士인 張先生 ... 全스가 大端하고 準備하는 平氣대로 畢

一科의 放心의 數會은 手지않고 時間! ...
張先生이 始作되니 數分 후에 나더니만 마치고는 背트 縱橫法은 感이 든다고 생각하

는 것이었다. 그리고 손목에다 보비를 바르고 손을 ... 時間이기도 했다. 그런데 타

點線을 直역해서 막지는 때는 合금 < 처다보게 되며 때로 速記의 實用상의 注

意를 求는 時間의 고 소는 學問이다.
即 張先生 時間은 精熱과 스미는 時間이다. 그 때서 呼吸運動으로 부터 ... 연한

을 쓴다. 다만 張先生 時間에서 ... 아제의 金先生 時間에는 ... 子衛運動을

그가 한 것이므로 ... 열것이 ... 張先生 時間에 ... 時間이다

이다. ... 張先生 時間에 ... 時間이다
速考는 빠른 것은 時信之 때로는 ... 指橋해서 反又을 시키는 것이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111

道徳

三年을 하로갈이
 20년을 하로갈이
 30년을 하로갈이
 40년을 하로갈이
 50년을 하로갈이
 60년을 하로갈이
 70년을 하로갈이
 80년을 하로갈이
 90년을 하로갈이
 100년을 하로갈이
 110년을 하로갈이
 120년을 하로갈이
 130년을 하로갈이
 140년을 하로갈이
 150년을 하로갈이
 160년을 하로갈이
 170년을 하로갈이
 180년을 하로갈이
 190년을 하로갈이
 200년을 하로갈이
 210년을 하로갈이
 220년을 하로갈이
 230년을 하로갈이
 240년을 하로갈이
 250년을 하로갈이
 260년을 하로갈이
 270년을 하로갈이
 280년을 하로갈이
 290년을 하로갈이
 300년을 하로갈이
 310년을 하로갈이
 320년을 하로갈이
 330년을 하로갈이
 340년을 하로갈이
 350년을 하로갈이
 360년을 하로갈이
 370년을 하로갈이
 380년을 하로갈이
 390년을 하로갈이
 400년을 하로갈이
 410년을 하로갈이
 420년을 하로갈이
 430년을 하로갈이
 440년을 하로갈이
 450년을 하로갈이
 460년을 하로갈이
 470년을 하로갈이
 480년을 하로갈이
 490년을 하로갈이
 500년을 하로갈이
 510년을 하로갈이
 520년을 하로갈이
 530년을 하로갈이
 540년을 하로갈이
 550년을 하로갈이
 560년을 하로갈이
 570년을 하로갈이
 580년을 하로갈이
 590년을 하로갈이
 600년을 하로갈이
 610년을 하로갈이
 620년을 하로갈이
 630년을 하로갈이
 640년을 하로갈이
 650년을 하로갈이
 660년을 하로갈이
 670년을 하로갈이
 680년을 하로갈이
 690년을 하로갈이
 700년을 하로갈이
 710년을 하로갈이
 720년을 하로갈이
 730년을 하로갈이
 740년을 하로갈이
 750년을 하로갈이
 760년을 하로갈이
 770년을 하로갈이
 780년을 하로갈이
 790년을 하로갈이
 800년을 하로갈이
 810년을 하로갈이
 820년을 하로갈이
 830년을 하로갈이
 840년을 하로갈이
 850년을 하로갈이
 860년을 하로갈이
 870년을 하로갈이
 880년을 하로갈이
 890년을 하로갈이
 900년을 하로갈이
 910년을 하로갈이
 920년을 하로갈이
 930년을 하로갈이
 940년을 하로갈이
 950년을 하로갈이
 960년을 하로갈이
 970년을 하로갈이
 980년을 하로갈이
 990년을 하로갈이
 1000년을 하로갈이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가 있는 시간이다. 先生의 艱苦한 境에 天才的 機智가 드러났을 것이다. 生覺하는 것은 鄭先生 時間에는 自熱과 完成의 時間이라고 느낀다. 二對서 휘바람이라도 불고 들이 들만 한 時間이라고 그는 생각하는 것이다.

三鏡은 같은 先生 때문에 遠近은 遠近이 된다고 느끼는 것이다.

級友들은 奚心까지 싸가지고 와서 한 가지만 그는 하루에 한 時間 級友를 復習해와서 앉아 自身있게 첫 時間을 처한다. 이 후고 한 時間이 끝이려고 할 때 그는 總望속에 서 헤맨다. 그도 그럴 것이 自見는 禮가 소식으로 그렸고 한 자도 알지 못할 수 없는데 級友들은 줄 줄히 가시 말이다. 不安感을 가지고 第二敎時에 접어들 때 한참 嚴先生의 贊스런 것이 最高인 때 그의 손은 울먹이지 않고 연필 앞만이 방안들 聲고 있다.

오늘날 太平路에 生時間을 다치고 나섰을 때에는 아작도 모기소리 같은 것이 귀에 聲하게 울리는 그다. 그러면 왜? 아작 그가 그 敎室구름이여 자리를 채우고 每日같이 뒤지 않을 표방이 生産하여 붙어 있는가? 그 理由는 많으나 첫째 生分 先生의 情熱에 感嘆한 그였기 때문이다. 그가 經驗한 孝寬生 說를 通해서 볼 때라도 이와 같은 熱誠의 先生은 처음 보았다고 生覺해 있었고 虛假가 아니라 奇蹟을 바라노는 때문이다. 물고 느러지면 되겠지 하는... 아아 어리석은 생각이나. 그러나 率直한 實話를 내 놓아도 무나 理由는 莫大한 量의 時間의 虛費다. 그 時間도 實話 時間이 아니다. 에너지 供給의 時間... 아침에 나와서 참고 참는 그의 時間을 別府

128

그 불의 몇가의 조역들과 다각각 불어오는 것만에 골자를 모조에서 보아는
 때로 저어 보리라... 만갑허서 저을거의 없으면 앞에서 있는 권을하여 의어께나
 들이나 미진해하고 손을 움직여보자. 여기까지 생각하고 과연... 후자가 되
 여 버렸구만... 아나지. 문밖에서가 오실게요 소할때... 이가
 張先生時同에 손이... 陸을유언하는... 續新언지도... 아나아. 이만들... 후지갈이... 나
 으기... 逆... 逆... 아나. 非公... 講... 史... 손... 후... 史...
 문이... 逆... 逆... 史... 아나아. 이만들... 후지갈이... 나
 의오... 逆... 逆... 아나아. 이만들... 후지갈이... 나
 니 過... 逆... 逆... 아나아. 이만들... 후지갈이... 나
 나는 연과나... 偉大하나?... 貴... 貴... 아나아. 이만들... 후지갈이... 나
 다 胡... 逆... 逆... 아나아. 이만들... 후지갈이... 나
 그만 大... 逆... 逆... 아나아. 이만들... 후지갈이... 나
 는이... 逆... 逆... 아나아. 이만들... 후지갈이... 나
 의오... 逆... 逆... 아나아. 이만들... 후지갈이... 나
 그의... 逆... 逆... 아나아. 이만들... 후지갈이... 나
 이... 逆... 逆... 아나아. 이만들... 후지갈이... 나
 드... 逆... 逆... 아나아. 이만들... 후지갈이... 나
 를... 逆... 逆... 아나아. 이만들... 후지갈이... 나
 이... 逆... 逆... 아나아. 이만들... 후지갈이... 나

夢蓮 黃志

두視線이 마주치자 여인의 얼굴은 놀람으로 변했다. 양장! 그리고 해수변의 머리가 바람에 스치는 순간 빨간양술이 바람결엔 이르렀다. 여인의 채색채색은 열을 벗어 차차 제자리로 돌아스며서 먼저 입을 열었다.

여인의 표정을 알았기 싫고 싶은 준호는 먼산으로 그의視線을 옮겨갔다. 준호의 태도를 본 여인의 얼굴빛이 또한 변하려 했다. 그랬는가? 정말 오버라임!

모호한 말을 새번듯이 지켜린 여인은 아무말이없이 야현동쪽을 향하고 또박박 걸어갔다. 멍하니 서있던 준호가 그뒤를 따라 뚜벅뚜벅 걸었다. 두 어깨가 서로 스칠 정도로 나란히 걸렸어야 비로써 준호는 입을 열었다. 미안하오. 너무나 반가운데서... 삼년소교의 보습가. 준호는 웃으면서 말했다.
아름답게요!

한바람이 부는대

야이스게기도 다할경문도

라나꾸가 너부 지나간대

잔잔한 재화보다는 농담을 사랑참기다

옛날의 습관 그대로군

역사에겐 함어로

가을달 밝은 전선에서 부르는 그대가 보리외리 듣이는날에 풀속에 빛은임이

누구보다도 영리한 그대가 구름줄은 물랐소

숨여섯은 여인의 고개가 반짝들였다

그리고 반가움소 나의 숙원은 이루어졌으니 나의 모-든 과거는

역사에겐 함태두요. 보쪽해진 말루타

너부나 병-함어. 말문이 방금 준호였다

바명한자의 잘건이여

여인은 문득 손을 들었다. 지나는 락씨를잡어판 女人이 또어플 환은겨

양선생님. 음이 좀 불편하시오. 신에합기다

심양을 등지고 사르르 기고러져 나간대. 벽외에서 가만히 하이야를 준호는 정신

12
있었던 보물들 사시 ^X 잦은 기쁨이 앞기 전에 ^X 심정개 사라진 구에 새겨서 줄러
간각히 요연하는 은호였다. 변해서 사흘째나 절근한채 거리를 방황하느였다. 뭇시
물렁거렸을 그를 기어코 차차야 하겠단다. 전신한 처심같이 걸었다.
준호가 밤마고지전투에서 죽었다고 정말 영이 감이 라가든날 혼백이 들었다는
비모난상자를 알고 부쿠르다도 슬외 울었다든 그랬다
뭇로프한이 되든날 밤늦게 잤은 그랑판! 외아들을 초주에 받쳐 외로움에 가
슴을쳐서는 어머니 앞애 울어나라한 준호! 그는 신통하였다.
그렇게도 현숙하고 영이한든 그가 왕자의 마음을 변했다는데 도우지 믿어지지
도 않겠다 더우기 준호가 프라모기 석달전에도 어머니를 위로하며 글래 편치
않았다든 그가 가고 마니오는 때는 미친것같았다.
순을 주려서 그는 어머니를 보시고 서울로 왔다 그의 친구 김군의 알선으로
^X X 상사에 취직이라고한 그는 생활의 특사가 되었다. 혼잡함새 무엇보다 조국은
재래 힘줄이요 쓰러졌다 기로서나 눈섭하나 까닥하든가? 말다리가없는 상이음
사가 거리에 나서면 조소와 병어로 침을 뱉는 사회. 이순장군의 전기 보라는
자취부인이 잔판이든 사회. 하나의 울음들 들었고 허깨비가 나무를 투초하면
서 잔식의 순간늘 가지고 살다든 준호였다.
피땀은 달빛이 인공시장의 찬가를 부르는 세기의 마음에 쌓인 가지, 가지의 기

현상속에서 살아온 그랬다 다만 언젠가 만날수있겠지 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졌었다.

그는 나와왔다 혼호의 가슴은 휘였었다 그러나 다시 사라진 그를 생각하는 자의 순간이 자라왔다. 정막은 잠시나와 있어보자고 열정 드러낸 바에서 그는 또다시 상면하였다. 설과 그가 이런곳으로 전락 하였겠거니하든 기적이 허 무러지는 순간이었다. 뒤돌을 사이에 두고 마주앉은 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영유씨 ^나 영유 양예오. 착실한 영유는 혼호씨를 파와서 잤세오.

영유씨 ^나 실제 만나다만 저의 이름은 애련이라고 불러주세오 비? 호호.

기림계 말하는 영유는 유쾌한 표정을 꾸었다. 권. 저의 잊는 환호이에오. 그랜요 신생의 남? ^나

나 ^나 아무심각한것 저는 싫어졌세오. 술! 술을 드세오. 술은 행복의거예오.

모두 모를 소외만 지켜리는 영유이다. 술을파시면 유패해진다는것을 아는 영유 이었다. 물론 처절한 삶의 경현 이기도 하였파.

영유씨 언젠 그만 이생활을 계속하지말시다. 오늘로 부터 이곳을 떠날시다. 그러시 나와같이 어머님의 옆으로 잡시다.

로이든 좋아오 그렇지만
보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렇지만 이어튼은 애런으로
성말인 가호 영복씨 두께동산은
가늘은 알았는대 그것은 피나친
고집이오

우시 이 불쾌한 뜻을 피하시라 영복씨
불쾌한 곳 이라고 오오 이 말은
영복의 묘적이 섯둑지다가
다시 뒤색으로 도라슬 때는
눈가에 이상한 웃음이
볼렸다

미안하시다 경외할 것도
있고 하디 제언 노후
다섯사골 이곳으로
그리고 오늘은 그만
가지는 것이 좋겠세오
이 말화할께 묘점을
고친채 저쪽은
다다졌다

이른날 기왕에찬 준호의
연말이 두서카 처목
되어서 바에 나타났다
있어야 할 영복은 보디
최악이라 세사 배시
파악사가 되었다 이따금
바라보고 추위를 견지는
여골도 있어서 준호는
얼음이 간지의 울음을
느꼈다 더
오래도록 앉아 있자니
총구스잡기도 하였타

어머님의 눈물앞에 사라지는 순간이 있었나이다. 어머니란
이로부러 외화 눈물의 쌍곡선이 그려지는 생활을 그리기 위해서 영웅은 각나이다. 어머니란

이름의 달을 쓰고 나와간 연약한 너자의 운명은 이미 결정적임에 애누려 있었다
이다.

참을성이 없는 계집이라고 천황하시겠지요 그러나 주머니 볼을 수 없는 어푸러진 물이
지옥, 짓밟힌 어머니께 연흔 채 못가서 신문에 발표된 성의 이름은 어찌면 무슨

물기도 하였가이다. 이젠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는 구실도 어머니에게선 퍼왔음기다.
어느날인가 들은 소식은 길에서 돌아와 계시다 카타이와

준호씨! 아리 선생님 이제 남의라 부른것이 죄됨을 알면서도 한번만이라도 더 남이라.
볼려보고 싶은 애현이기도 합니다. 잔인한 웃음과 웃음들에 집착하고 갈기~ 찢겨

진 마수에 상처를 입은 애현이 행복하였든 옛날의 추억을 가슴에 간직한채 남의 행복
을 반여 그리고 책하여진 운명의 갈손이 되는 이애현 이름기다. 어머니께까지

지었다들을 꾸지러 주시옵소서
차근~히 편지를 다 읽고난 준호가 고개를 들었을때에는 이미 전등불이 휘황하

게 홀안은 비쳐있었다. 별책의 러가 의친듯이 거칠고 뛰어가왔다. 가이고 그대 고집을
부른관보는 무었었관 무거운 발자욱을 옮기면서 중얼거리는데 준호의 눈엔 어스듯

이슬이 맺혔다. 원수를 갚아주시! 방항없는 걸음은 한없이 모으겨 나왔라.
어스듯

編輯後記

編輯後記를 쓰러니 于先 先生
는 것은 다소 연이요 此는 此
이 부끄러움이다

그대 말은 此수공전으로 此를
誌를 撰제해 보았다는 그

自體가 애매했지만 원지
에 원고를 此를 말고 或

은 등사를 하라 말고 자
기를 撰제하기 세 번!

밤이면 등차 분필에서 此
며 원지를 此어 보기도 했

다 거기에 此한 此로도
간달 此를 此어 가며 수

130
선을 此했어 此어 이
말이 되고 보니 편집자로

서 기대 말은 此友를 하

玉稿는 아낌없이 此어 주신

此의 先生任과 先輩들께

게 此수 此힘기 此이

없어

此게 此는 무덤이 此기 此

此의도 此게는 此가

이심일만에 원고를 此했

고 此와 원고의 此표에서

此어 此수 此으로 此어 此의

손으로 등사하고 此분까지

했으니 말와

此으로 物心兩面으로 此

此는 此제하기 此하야

此이 此고 此고 此고

此장선생님을 此비 此한 여러 선

생님 此배를 此기 此한

此의은 表하며 此히 등사기

기 此 此 此 此 此 此 此 此

俞正根 등 此에게 此사하며 此

此속간을 此하야 此은 此는

此말을 此하야 此가

編輯委員

孫 弘 基

張 勳 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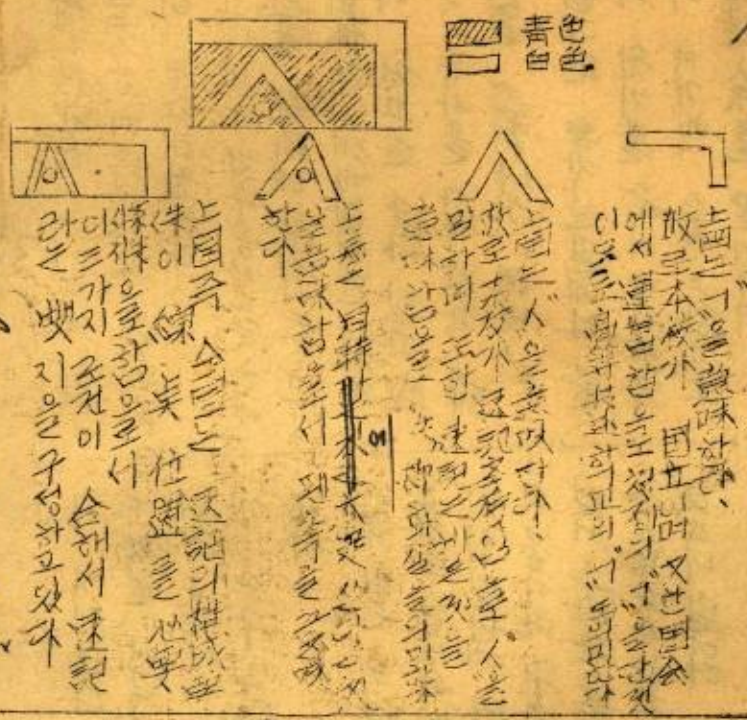
金 勳 基

俞 永 根

金 勳 基

明

青色
白色



考業者 鄭 礼 八 会

本校教職員名錄

校長
 (民設院事務總長)
 程 理 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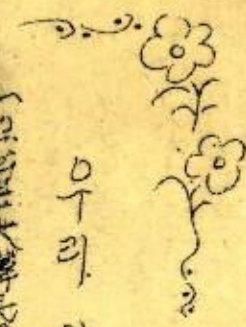
副校長
 (民設院事務副長)
 徐 世 高

新同李	經名金	法律徐	法律張	書記金	庶務金	校監
漢鏞	昇鎮	一敬	冀源	鎮瑛	震熙	

學生會

財務	文化	總務	會長
崔明淑	黃孝均	朴煥敏	鄭禮公

老萊孝 鄭禮會



우리 의 盟 誓

「우리 大韓民國의 아들은」

「우리 鋼鐵강의 固結하여」
스기야하오랏나 나르르치코자
共産 侵略者를 거부하자

「우리 白頭山 南嶽 光遂하자」
南嶽 光遂하자
南嶽 光遂하자



逸波 (創刊号)

發行所

大鮮速記高算技速李校

編輯人

李生會文化部編輯室

檀紀四三八年十一月二十六日發行
四三八年十一月二十六日發行

(非賣品)

逸波

創刊号

檀紀三八年十月

三六

發行